주목 받는 청년희망펀드

metro®

메트로 2015년 10월 23일 금요일 제3326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22일>

코스피 2023.00 (-19.98)

코스닥 676.30 (-10.20)

금리(국고채 3년) 1.65 (+0.01)

환율(원·달러) 1138.60 (+1.60)

朴 대통령·여야 지도부 '5자 회동'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 6% 수익… 다시 뜨는 金

中 경제 불안 등 글로벌 불확실성 "믿을 건 金뿐" 안전자산 선호 부각

주요 원자재 펀드 수익률 21일 기준·단위 : %

테마	1개월	연초이후	1년	2년	3년	5년
농산물펀드	1.09	-14.21	-10.56	-19.19	-27.71	-19.16
원자재펀드	1.29	-13.33	-18.96	-26.58	-39.64	-43.11
금펀드	6.08	-3.93	-8.87	-15.75	-40.97	-32.03
천연자원펀드	0.08	-18.78	-28.21	-36.19	-46.79	-53.27
원자재(주식)	2.76	-17.23	-23.55	-31.76	-45.90	-53.89

*수익률의 경우 설정액이 10억원 이상(클래스펀드는 1억원 이상이면서, 동일클래스 합계 규모가 10억원 이상). 단 비평가 펀드 및 운용·모펀드는 제외됨. /자료=에프앤가이드

글로벌 금융시장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금값이 오르자 금펀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펀드의 경우 1개월 수익률이 6%를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금융시장은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1주일 앞두고 금리 인상 지연에 무게를 두고 움직이고 있다. 중국 경제도 불안하다. 중국의 올해 3·4분기 경제성장률은 6.9%에 머물렀다.

시장이 불안해지자 '역시 믿을 것은 금뿐'이라는 수요가 형성되고 있다.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금 투자법은 단연 금펀드다. 보통 금값이 '금값'이 되는 시기는 △불확실성이 커지며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부각될 때 △공급 대비 수요가 늘어날 때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질 때 △통화가치(통상 달러값)가 하락할 때 등이다.

22일 금융정보업체인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설정액 10억원 이상 11개 금펀드의 1개월 수익률은 6.08%를 기록했다.

1년 새 8.87% 빠진 점을 볼 때 높은 반등세다.

개별 펀드들 역시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있다. '블랙록월드골드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A)', '신한BNPP골드증권투자신탁 1[주식](종류C-i)' 'IBK골드마이닝증권자투자신탁[주식]Ce' 등이 9~10%의 수익률일 내고 있다.

최근 금 가격은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값은 지난 15일 온스당 1187.50달러로 지난 6월 19일(1204.00달러) 이후 최고로 올랐다.

이후 소폭 조정을 받아 온스당 1170달러선으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달 들어 상승 흐름은 뚜렷하다.

상품시장에서 보통 달러로 거래되는 금의 특성상 금값은 달러화 가치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최근 들어 약달러 현상이 강해지면서 달러의 대체자산인 금이 강세를 보였다.

호주 NAB은행의 라이 비안 연구원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미뤄질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어 투자심리가 금값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값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새로운 '금리 지표'로 떠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전통적으로 정치·경제 위협도에 따라 크게 흔들렸지만 최근에는 미국 연준이 언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인가에 좌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값에 대한 기대는 펀드 유입자금이 잘 말해 준다. 연초 이후 약 642억원이 몰렸다.

그러나 금값 전망은 썩 좋지 않다.

최근 런던금시장연합회(LBMA)가 개최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내년 금값이 온스당 1160달러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최근 8년래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 금값 상승 추세가 계속되더라도 금 투자는 보유 자산 하락 리스크를 방어(헤지)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금 펀드로 '대박'을 노린다는 생각은 두고 가는 게 좋다는 얘기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연평균 10~15%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라면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을 투자할 만하다"며 "금값은 달러값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를 잘 살펴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삼성SDI 중국 서안공장 외관. /삼성SDI

발 빠른 삼성SDI

배터리 업체 최초 中 진출

삼성SDI가 글로벌 배터리 제조 기업 중 가장 먼저 중국에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전용공장을 완공하고 중국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

삼성SDI는 22일 중국 산시성 시안시에 위치한 까오신 산업개발구에서 조남성 삼성SDI 사장, 장원기 중국삼성 사장, 지앙펑 산시성 공업부성장, 주요 협력사 대표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삼성SDI 시안공장은 연간 약 4만대 분량의 고성능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는 최첨단 생산라인이다. 특히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셀과 모듈의 전 공정을 일괄해 생산할 수 있다.

삼성SDI는 앞으로 시장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라인 추가 증설 등 2020년까지 총 6억 달러를 단계적으로 투자해 매출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환신은 삼성SDI의 세계 최고 배터리 기술력과 환신의 자동차 부품사업 노하우·마케팅 시너지를 더해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안공장은 지난 9월부터 글로벌 완성차 업체는 물론 중국 및 세계 버스시장 1위 업체인 위통, 중국 내 트럭 1위 업체 포톤 등 현지 상용차와 승용차 10개사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

조남성 삼성SDI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시안은 실크로드의 기점이자 중국 경제발전 프로젝트인 '일대일로'의 주요 거점"이라면서 "중국의 역사적 전통과 미래의 발전 전략에 발 맞춰 시안 공장을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There is no golden ages for Korean citizens.

국민의 노후는 없다

"Is it okay to leave retirement savings in the hands of public corporation? 'I feel really bad that we made people feel worried and insecure. At this rate, the citizens' old age will not be very stable."

Hong Wan-Sun, the director of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does not often show what he is really up to. He hardly blames others. We could not get hold of him even though we had tried several times to have a telephone interview with him on the 21th. In fact, above comment was virtually created by a journalist who has been watching Hong at official and unofficial occasions.

Should we leave the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in the hands of public corporation or leave it as it is now?It does not seem like there is an answer to this. What is clear is that we need to secure the independence and speciality of the fund that will be raised up to a quadrillion. This is the predominant view of the market. It coincides with director Hong's opinion. Hong often said "If the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is solely left to public corporation without being seperated, it will be difficult to employ great talents since the chairman of the board can interfere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or budgetting and consquently, overseas investment will be reduced which will make it difficult to administer the fund in an efficient way."

Officials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aid on the 21th that the chairman Choi said "I will take the responsibility" at the meeting with the minister Cheong Jin-yub on the 20th.

"'노후 자금을 공단에 맡겨도 될까' 국민들께 불안과 걱정을 끼쳐 가장 죄송스럽다. 이 대로 가다간 국민의 노후가 안녕하기 힘들 것이다."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좀처럼 속내를 비치지 않는다. 남의 탓을 하는 경우도 없다. 21일 수차례 전화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평소 공공 및 사석에서 지켜본 기자가 그의 속내를 가상한 코멘트다.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 할 것이냐, 현 상태로 남느냐에 정답은 없다. 분명한 것은 2600조원까지 커질 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홍 본부장의 생각도 일치한다.

홍 본부장은 평소 "기금본부가 분리되지 않은 채 공사 체제로 남아 있으면 이사장이 인사나 예산 등에 간섭할 수 있어 우수한 인재를 쓸 수 없고, 이로 인해 해외 투자가 위축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치곤 했다. 2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 이사장이 지난 20일 밤 정진엽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국제

▲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만리장성을 찾아 중국 시장 공략에 더욱 힘을 쏟는 시각, 샤오미의 공동창업자인 린 빈 CEO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시 아래의 라구나 비치에서 샤오미 스마트폰의 미국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애플과 샤오미 간 서로의 안방을 노리는 일대 전쟁의 신호탄이 올랐다.

▲ 영국을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맹방인 영국에 400억 파운드(약 70조 원)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 일본도 프로야구 선수들의 **도박**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오는 24일 시작되는 일본 시리즈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사회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발간한 교과서 발행제도 개선방안에는 이념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 국정제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견지됐다"고 말했다.

▲ 12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진태**(63·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 후임자 후보군이 오는 28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 외국계 자산운용사 임직원 등 기관투자자들이 시세조종 세력과 손잡고 **주가조작**에 가담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북한이 이번 이산가족 상봉의 성과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가자며 **'8·25 남북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했다.

현재 고등학생 1~2학년이 배우는 검정 **한국사 교과서** 8종의 현대사 단원에 수록된 사진이 조작되거나 사진설명이 부정확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의 대표적 여류 화가인 **천경자** 화백(91)의 타계 소식이 22일 전해지면서 그가 남긴 작품과 평탄하지 못했던 삶이 재조명되고 있다. 천 화백의 맏딸 이혜선(70)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천 화백이 8월6일 새벽 5시께 미국 뉴욕 맨해튼 자택에서 숨을 거뒀으며 의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평안하게 돌아가셨다고 밝혔다. 2003년 봄 뇌출혈로 병상에 누운 뒤 외부와의 접촉을 끊으며 1년 전부터 생사 여부 논란이 있어 왔다.

▲ **최진철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U-17 축구대표팀은 오는 24일 오전 5시(한국시간) 칠레 코킴보 프란시스코 산체스 루모로소 스타디움에서 잉글랜드와 B조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른다.

'이산상봉' 작별의 순간 제2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1회차 마지막날인 22일 오전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열린 작별상봉 행사를 마친 이산가족들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금상산=연합뉴스

산업·경제

▲
삼성SDI가 글로벌 배터리 제조 기업 중 가장 먼저 중국에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전용공장을 완공하고 중국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

▲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사장단이 청년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기 위해 총 250억원을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했다.

▲ **SK하이닉스**가 7분기 연속 영업이익 1조원 이상을 달성하며 SK그룹 내 효자 계열사로 올랐다.

▲ 한국 조선 업계를 이끌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한국 대표 에너지 기업 삼성엔지니어링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 **롯데그룹**이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회장에 대한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신 전 회장은 SDJ코퍼레이션에 해임과정에 문제를 제기했고 롯데그룹은 공식성명을 통해 신 전 부회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 **농심**이 백산수 수원지의 물을 활용한 음료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농심은 연변공장에서 음료 사업을 병행할 예정이며 생수는 에비앙, 음료로는 코카콜라를 제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테스코와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주식양수**도 계약이 완료됐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후 2년 동안 1조원의 투자계획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날 홈플러스노조가 MBK측에 대화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면서 MBK에 노사 갈등 해소라는 새로운 숙제를 던졌다.

▲ 글로벌 금융시장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금값**이 오르고 있다. 덩달아 일부 상품 수익률이 6%를 웃돌기도 하는 금펀드도 주목을 받고 있다.

▲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이 3·4분기에 **부실기업 대출** 등으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돈이 6000억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예상치 못한 수익이 나면서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짭짤한 과외 수입(배당)을 챙기는 곳도 있다.

▲ 금융당국과 채권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 전제 조건으로 회사의 고강도 자구계획과 함께 노사의 희생과 동의를 내세우면서 대우조선해양 정상화에 제동이 걸렸다. 채권단은 4조원 안팎의 금융지원을 담은 지원계획 시행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이건희 회장 기부로 '청년희망펀드' 주목

'일자리가 미래' 지도층 참여로 사업 '탄력'

李 회장 200억·사장단 50억
"청년 일자리 창출 동참"

朴대통령 등 정재계 참여
'청년 희망재단' 설립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기부로 청년희망펀드가 또 다시 주목받고 있다.

2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청년희망펀드 누적액은 이날 현재 300억원을 돌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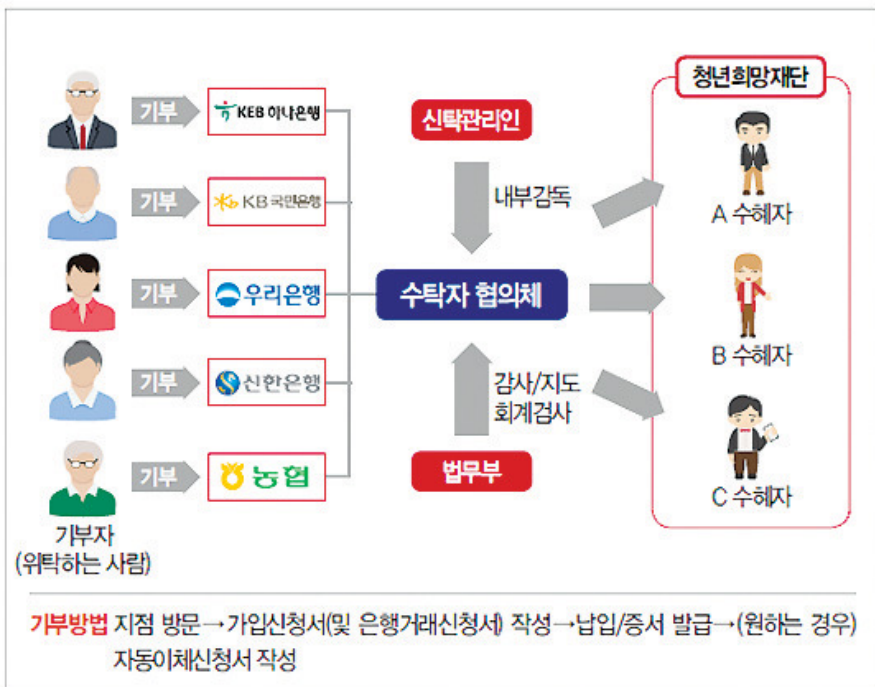
특히 이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0억원, 삼성사장단이 50억원을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하기로 하면서 모금액은 343억원을 넘어섰다.

전날까지 13개 은행을 통해 93억원이 모아졌다. 모두 7만1804계좌를 통해 64억2972억원이 모금됐다. 기부를 약속한 누적 기부약정총액은 28억732만원에 이른다.

현재 와병 중인 이건희 회장의 기부는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이뤄졌으며, 이재용 부회장 역시 사장단의 일원으로 기부에 동참했다.

삼성 미래전략실 이준 커뮤니케이션팀장(부사장)은 "청년희망펀드에 삼성사장단과 임직원이 250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희망펀드는 지난달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해 만들어졌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청년희망펀드 1호로 가입했으며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고위 경영진의 거액 기부에 앞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도 지난달 17일 '청년희망펀드'에 20억원을 기부키로 했다. 회사 차원이 아닌 사재를 기부하는 방식이다. 그는 젊은 구직자와 비정규직 청년을 돕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공감해 기부를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박 회장은 "'가난'을 경험한 마지막 세대 기업인으로서 후대를 위해 무엇인가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 갖고 있었다"며 "청년희망펀드에 대한 기부는 국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년희망펀드 개념도

출처 : 청년희망펀드 누리집

이밖에 정치인,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운동선수, 유명 연예인, 교민들까지 청년희망펀드 가입에 동참했다.

시행 초기 금융권에서는 청년희망펀드 할당량을 강제하고 있다는 잡음도 있었지만 정·재계는 물론 일반인들까지 청년희망펀드에 적극 참여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청년실업이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년희망펀드를 통해 구직자와 비정규직 청년을 돕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에서다.

이런 기대를 담아 지난 19일에는 청년희망펀드로 조성된 기금으로 '청년희망재단'이 설립됐다. 초대 이사장으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가 선임됐다.

황 신임 이사장은 혁신과 창조정신으로 특허 2000여 개를 보유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벤처 기업가로 벤처기업협회장을 역임했고, 사재 20억원을 출연해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도 설립하기도 했다. 청년 창업 지원, 멘토링 등 다양한 공익적 사회활동에도 헌신하고 있어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손꼽힌다.

청년희망재단은 앞으로 청년희망아카데미를 설치할 예정이다. 청년희망아카데미는 기업의 고용 수요를 기반으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원스톱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청년희망아카데미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과 차별화해 기존 졸업생·이공계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직업훈련을 재학생·인문계와 예체능계 등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진로 지도에 있어서도 구직 현장에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민간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활용한 멘토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청년희망재단은 ▲맞춤형 훈련을 알선하고 일자리로 연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인재 뱅크 구축 ▲청년 해외 진출 프로젝트 추진 ▲창업 지원을 위한 멘토링 제공 ▲직업체험·단기취업 기회 제공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자사주 매입·배당 확대… 주주에 손짓하는 상장사

SK·두산건설·삼성물산·SK텔레콤… 9~10월 자사주 순매입
KB손보·기업은행·하이트진로·세아베스틸 등 배당주 매력↑

주식시장 상장사들이 잇따라 주주친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배당 친화정책과 맞물려 상장사가 배당을 확대하는 추세여서 배당투자에 대한 매력도 커졌다.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0.79%(1만원) 오른 128만원에 장을 마쳤다. 삼성SDS(0.5%), 삼성생명(1.9%), 삼성화재(3.72%) 등 핵심 계열사 주가도 동반 상승했다.

전날 삼성그룹이 오는 26일부터 주요 계열사의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심리가 살아났다.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 또는 매입 후 소각안을,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은 자사주 소각, 삼성화재는 배당성향(전체 순익에서 차지하는 배당금액) 제고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사주 매입은 전통적인 주주가치 제고 수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의 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 3대 패키지 정책 등 기업 배당 증진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이 맞물리면서 기업의 주주친화 움직임이 활발하다.

국내 기업들의 배당성향은 지난달 말 기준 평균 17.456%로 2013년 13.599%, 2014년 15.331%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배당성향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가운데 주주에게 배당으로 돌아간 금액이 얼마인지를 나타낸다. 배당성향이 높을수록 주주친화적인 기업으로 분류된다.

특히 연말 배당시즌이 다가오면서 배당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사주 매입 종목의 주가 흐름도 호조세다.

실제로 정몽진 KCC 회장은 지난 8월 삼성물산 투자와 실적 부진에 따른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5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연간 기준 첫 적자를 예고한 포스코도 업계 최초 분기배당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임원 전원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달 자사주 순매입 코스피 종목은 삼성물산, SK, GS건설,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휴켐스, SK텔레콤, 대교 등 20개다.

장희종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코스피 종목의 자사주 매입액은 지난 8월 6394억원, 9월 7680억원으로 증가추세"라며 "이달에도 20일 기준 5000억원이 넘는 자사주 순매입액을 기록, 자사주 매입액이 늘면서 월간 거래대금 비중도 동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장 연구원은 "올해 중반 이후 부진했던 배당주 성과 개선이 재개되고 있다"며 "자사주 매입은 기업 입장에서 매년 지급되는 배당보다 더 융통성 있는 주주환원 수단이고, 주주 입장에서도 세금 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점에서 자사주 매입 종목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 연말까지 뚜렷한 주식시장 상승 요인이 없다는 점도 배당주 매력을 더하고 있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과 유럽처럼 국내에서도 국채금리와 배당수익률이 역전되는 시대를 앞두고 배당주의 매력이 두드러질 것"이라며 SK텔레콤, KB손해보험, 메리츠종금증권, 동국산업, 하이트진로, 블루콤, 서원인텍, 세아베스틸, 한국쉘석유 등을 고배당주 중에서도 향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가 큰 종목으로 꼽았다.

김 연구원은 또 양호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배당이 꾸준히 늘 것으로 전망되는 '배당 성장주'로 고려아연, 강원랜드, 오리온, GS리테일, 에스원, 오뚜기, 유한양행, 하나투어를 추천하고,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배당이 기대되는 '깜짝 배당주'에는 기업은행, BNK금융지주, 두산, DGB금융지주, 만도 등을 꼽았다.

/김보배 기자 bobae@

뒤늦은 천경자 타계 소식에

미술계 "부고도 없이… 허탈"

강렬한 채색화… 한 획 그어
최고가작 '초원Ⅱ' 12억원 거래

한국의 대표적 여류 화가인 천경자 화백(91·사진)의 타계 소식이 22일 전해지면서 그가 남긴 작품과 평탄하지 못했던 삶이 회자되고 있다.

천 화백의 맏딸 이혜선(70)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천 화백이 8월6일 새벽 5시께 미국 뉴욕 맨해튼 자택에서 숨을 거뒀으며 의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평안하게 돌아가셨다고 밝혔다.

천 화백은 국내 대표 여류 화가로 승승장구했지만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 미인도 위작 사건'으로 미술관 측과 소송에 들어갔다 패소한 후 붓을 꺾고 맏딸 이혜선씨가 사는 뉴욕으로 떠났다. 2003년 봄 뇌출혈로 병상에 누운 뒤 외부와의 접촉을 끊으며 1년 전부터 생사 여부 논란이 있어 왔다..

화가 천경자는 강렬한 채색화로 한국 화단에 큰 자취를 남겼다. 자화상, 여인, 꽃 등을 주된 소재로 원색 화면에 야성적인 느낌으로 담아내는 독특한 화풍으로 대중을 매혹시켰으며 타히티 연작 등 세계풍물기행화로도 이름을 알렸다

타고난 글재주로 1955년의 '여인소묘' 등 단행본, 수필집, 신문잡지 연재 등을 통해 대중과도 호흡했으며 당대의 패션 리더이기도 했다.

김환기, 박고석, 최순우, 김흥수, 유영국, 김현승, 고은 등의 남성 예술인과 박경리, 한말숙, 전숙희 등 여성 문인들과 단짝이었다.

1924년 전남 고흥의 유복한 집안에서 1남2녀 중 장녀로 태어난 천 화백은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졸업 후 1941년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 유학을 갔다. 1942년 제22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외할아버지를 그린 '조부(祖父)'가 입선하고 1943년 제23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외할머니를 그린 졸업 작품 '노부(老婦)'가 입선하면서 화단에 들어섰다. 1952년 피란지인 부산에서 연 개인전에 나온 우글우글한 뱀 그림 '생태(生態)'로 일약 화단의 스타작가로 뛰어올랐다.

미술계에선 천 화백의 별세 소식에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한 화랑 대표는 "워낙 미술계에선 오래전부터 천 화백의 별세 소식을 예상했지만 정확하게 알리는 과정도 없이 이렇게 밝혀질 줄은 몰랐다"며 "상징적 어르신인데 허탈하면서 황당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서울옥션과 K옥션에 따르면 천 화백 작품 중 최고가로 낙찰된 작품은 2009년 K옥션을 통해 거래된 '초원Ⅱ'(1978, 105.5×130㎝)로 12억원에 팔렸다.

1962년작인 '원'(園)이 지난 2007년 11억5000만원에 낙찰됐고 올해 7월에는 여인을 그린 천 화백의 다수의 작품 중 수작으로 평가받는 '막은 내리고'(1989)가 8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밖에 1989년작인 '여인'이 8억원, 1982년작인 '모자를 쓴 여인'이 6억3000만원 등을 기록했다. /염지은 기자 senajy7@

애플 "안방 내놔라" 샤오미

팀 쿡, 만리장성서 中 공략 구상
린 빈 "미국시장 진출 검토"

스마트폰 혁명 vs 가격 혁명
경쟁사 안방 겨냥 전쟁 신호탄

팀 쿡 애플 CEO 린 빈 샤오미 CEO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만리장성을 찾아 중국 시장 공략에 더욱 힘을 쏟는 시각, 샤오미의 공동창업자인 린 빈 CEO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시 아래의 라구나 비치에서 샤오미 스마트폰의 미국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폰 혁명'을 일궈낸 애플과 '가격 혁명'을 통해 신흥강자로 부상한 샤오미가 서로의 안방을 노리는 일대 전쟁의 신호탄이 올랐다.

린 빈 CEO는 21일(현지시간) 라구나 비치에서 열린 월스트리트저널(WSJ) 글로벌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에 참석해 WSJ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해 7월 인도시장에 진출한 이후 300만대 넘는 스마트폰을 판매했으며 이제 미국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 시장 진출이 성과를 얻자 이에 자신감을 얻은 듯한 모습이었다.

샤오미는 지난 2월 미국 시장 진출 계획을 발표한 뒤 3개월 뒤인 5월 미국에서 헤드폰 등 액세서리 판매를 시작하고, 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해 왔다. 발표 당시 샤오미 측은 스마트폰이 기술적으로 복잡한 제품인 만큼 미국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일"이 필요하다며 차근차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경우 특허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방침이었다. 이날 린 빈 CEO의 발언은 특허 전쟁에 대비한 특허 신청 작업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짐작하게 했다.

태평양 건너 중국에서는 팀 쿡 CEO가 이른 새벽 만리장성을 찾았다. 중국은 캘리포니아 시간보다 4시간 빠른 정도다. 팀 쿡 CEO는 이날 자신의 웨이보에 만리장성에 오른 사진을 공개하며 "중양절(음력 9월9일)을 맞아 다시 한 번 중국에 오게 돼 매우 기쁘다. 새벽 장성에 등반해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기분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3월 첫 방문 이후 7번째로 중국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애플스토어 개업 행사 참석 차 중국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WSJ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24일 중국에 24번째 매장을 오픈할 것이다. 중국 사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시진핑 '줄 세우기' 외교… 美 맹방 영국에 70조원 쐈다
영국을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맹방인 영국에 400억 파운드(약 70조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미국과 갈등 중인 중국이 영국을 자신의 편에 끌어들여 미국을 견제하는 일종의 '줄 세우기' 외교로 풀이된다. 시 주석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21일(현지시간) 런던의 총리 관저에서 회담을 가졌다. 캐머런 총리는 회담 후 중국과 에너지 협력 등에 총 400억 파운드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유튜브 레드', 때아닌 포르노 논란

무광고 프리미엄 서비스
비슷한 이름 탓 구설수

유튜브가 선 보이기로 한 무광고 프리미엄 서비스 '유튜브 레드'를 두고 "포르노 사이트랑 헷갈린다"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유튜브 레드는 한 달 9.99달러(약 1만1370원)의 회비를 받는 대신 광고 없이 운영된다. 일단 미국에서 시작된다. 유튜브 레드는 퓨디파이, 루스터 티스, 릴리 싱 등 유명 동영상 블로거들의 동영상들을 독점 공개한다.

전문가들은 광고 수입에 의존하던 유튜브의 새로운 시도가 성공할지 여부가 관심이지만 대중의 관심은 엉뚱한 데 쏠려있다. 유명 포르노 사이트인 '레드 튜브'와 헷갈린다는 것이다. 이름만 헷갈린다면야 큰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유튜브 레드에 들어가기 위해 웹 서핑을 하다보면 레드 튜브에 들어가게 된다.

트위터에는 "이런 일 상상이 되지 않느냐. 레드 튜브에 들어가자 '이런 유튜브 레드에 들어가려던 건데'라고 외치는 모습을"이라거나 "구글(유튜브의 모회사)이 생각 못한 것 같다. 유튜브 레드는 레드 튜브를 연상시킨다"라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아직까지 구글은 이름을 두고 레드 튜브에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레드 튜브는 유튜브보다 2년 늦은 2007년에 설립됐다. 아마 상표권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송병형 기자

롯데그룹 "신동주, 호텔 상장 막으려 경영권 분란"

긴급성명서 SDJ 주장 정면 반박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부회장의 해임 이유를 두고 롯데그룹과 SDJ코퍼레이션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롯데그룹측은 신 전 부회장이 일본롯데에 10억엔(95억원) 가량 손실을 입힌 것을 해임 사유 꼽았지만 신 전 부회장은 왜곡된 정보라고 맞섰다.

22일 롯데그룹은 긴급성명을 통해 신 전 부회장이 롯데호텔의 상장을 막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임 사유 역시 경영상의 과오가 명백하다며 신 전 부회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ㄴ이 제시한 분쟁의 해법인 한일롯데 분리경영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호텔롯데의 상장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규정했다. 롯데그룹측은 "롯데호텔의 상장은 그룹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수순"이라며 "한일 분리경영은 롯데호텔 상장을 막아 롯데의 일본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포석"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의 해임 사유도 경영상의 과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SDJ코퍼레이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0억엔 투자 손실을 낸 것으로 언급된 POS(판매정보관리시스템)에 추가 투자가 거절됐을 뿐 경영상 과오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SDJ측은 POS는 현재 일본 롯데에서 사용하고 있고 지난해 일본 코카콜라에도 판매한 검증된 시스템임을 강조했다. SDJ측은 "신 전 부회장은 해당 시스템 개발에 대해 신격호 총괄회장과 이사회로부터 총 870만달러를 승인받았으나, 30만달러가 추가로 필요해 총 투자비용이 900만 달러에 이르게 됐다"며 "신 전 부회장은 30만달러에 대해 사재 출연을 하겠다고 일본 롯데홀딩스에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덧붙였다.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과 무단 동반외출을 감행한데 이어 해임사유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연일 롯데그룹과 신동빈 회장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여가자 롯데그룹은 성명을 통해 강경한 입장을 다시한번 밝혔다.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이 주장하는 총괄회장의 진의에 의문을 표하고 동생이 화해하지 않으려 한다는 비난에도 적극 대응에 나섰다.

롯데그룹측은 "신동빈 회장은 이미 여러 차례 가족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화해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지만 가족 문제와 경영은 분리돼 논의돼야 한다"며 신 전 부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간극 못 좁힌 5자회담… '3+3회담'에 기대

與 "경제활성화 통과 합의 추진"
野 "민생 전념 요청에 묵묵부답"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5자 회담'이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동상이몽에 그쳤다. 회담이 사실상 빈손으로 종료됨에 따라 산적한 경제현안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내달 초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가 예정된 만큼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대치 격랑 속으로 빠져들 고 있다. 다만 앞으로 예정된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수석으로 구성된 '여야 3+3회담'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등 실질적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유일한 희망이다.

청와대에서 22일 오후 3시에 진행된 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해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4시 49분쯤 끝이 났다. 이날 회담에서 논의한 안건은 ▲미국 방문 성과 ▲노동개혁 5개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내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 ▲국정교과서 등 기타 현안 등 크게 6가지였다. 그러나 대부분 의제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는데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서 가장 큰 이견차를 보인 부분은 역시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 문제였다. 박 대통령과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올바른 역사교육이 필요하다는 데는 뜻을 같이 했지만 방식에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문 대표는 "국민의 간절한 요구는 경제살리기와 민생에 전념하라는 것"이라면서 "우리 당은 초당적으로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는데, 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께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매달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 원내대표도 "국정교과서는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것이고 역사 윤리를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이에 가세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올바른 역사를 만들려는 노력이 정치문제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국민통합을 위해 올바르고 자랑스런 역사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미국 순방에 대한 성과를 설명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북핵과 관련된 서명을 해 북핵이 주요 사안으로 정립됐다는 취지의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문 대표는 "미국으로부터 7조원이 넘는 (KF-X) 전투기를 도입하면서도 핵심기술을 이전받지 못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 5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문 대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민간 대기업도 청년 고용을 늘리도록 의무화해야하고, 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 3년째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월 원내대표들이 신속 처리에 합의했고 이견이 충분히 논의된 만큼 여야 원내대표의 결단으로 회기 내에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김성우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과의 FTA 협정의 조속한 법안 처리도 요구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한 회의 석상에서 "한중 FTA 비준 지연에 따른 손해 규모가 하루 평균 40억원"이며 "연내 발효가 무산될 경우 손해액이 내년 1년간 1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강조한 바 있다.

원 원내대표는 회담이 끝난 후 브리핑에서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을 밝히면 토론 수준의 논의를 했다"면서 "경제활성화법이 3년여동안 (계류돼 있어) 간곡히 국회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지만 성과가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다만 "앞으로 3+3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수석들이 회동을 곧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법안 통과 합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문 대표는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안타깝게도 일치되는 부분이 없었다"면서 "역사국정교과서를 중단하고 경제살리기와 민생에 전념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역사인식은 상식과 동떨어져 거대한 절벽과 같았다"면서 "왜 보자고 했는지 알 수 없다"고 의미가 없었음을 밝혔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 두번째)가 22일 오후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좌편향 교과서 바로잡기 국민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무성 "盧정부도 검정교과서 편향성 우려"

패배주의 역사관 미래 없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발간한 교과서 발행제도 개선방안에는 초등학교 사회 과목의 경우 역사가 포함돼 이념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 국정제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견지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겨냥, "문 대표는 자신이 청와대 비서실장 재직 시절에 이미 검정제로 인한 이념적 편향성 우려가 있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실제 지난 2007년 1월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는 일선 학교에서 국정교과서 대신 검정도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초등학교 '사회과 탐구' 과목은 역사가 포함돼 이념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해 국정제를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김 대표는 또 "지금처럼 과거지향적, 부정적, 패배주의적 역사관을 담은 교과서로는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 수 없다"며 국정 교과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경기도 성남시가 지역 청년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청년 배당' 제도 신설을 추진하는 데 대해 "청년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 포퓰리즘으로, 정말 옳지 못한 행위"라고 비난하며 "이는 마치 아르헨티나를 망쳐놓은 페론 대통령, 그리스를 망쳐놓은 파판드레우 총리를 보는 것 같다. 주민세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는 결국 부메랑이 돼서 주민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미란 기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경제법안 조속처리 협조"
"원론불과한 얘기 많았다"

청와대에서 22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원내대표와의 5자 회담은 웃으면서 시작됐지만 본격적인 회담이 진행될수록 긴장감이 감돈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국정을 휩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물론 노동개혁과 경제법안 등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3시 정각에 시작된 회담은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이심전심으로 시작됐다. 회담은 1시간 50여분간 이어졌다. 회담은 박 대통령이 먼저 청와대 회의실에 입장해 옅은 미소로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며 여야 지도부를 맞는 것으로 시작을 알렸다. 이 자리에는 이병기 비서실장과 현 정무수석이 회동에 배석했다.

애초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까지 회담 브리핑을 위해 대변인 배석을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회담이 파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국정 역사 교과서 문제와 국정 현안이 시급한 상황에서 배석 문제로 기회를 잃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결국 이날 오전 회담에 최종 참석할 것을 결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날 회동에서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 5대(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입법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지만 회담 직후 문 대표는 "원론에 불과한 얘기들이 많았다"면서 일치된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제활성화 법안 등 산적한 현안들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셈이다. 특히 국정 교과서 문제 등을 놓고 30분간 이어진 대화에서는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올바른 역사 교육에는 동의하면서 방법을 두고 시종일관 팽팽한 분위기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 후 여야가 한 브리핑에서 공개된 내용을 보면 박 대통령은 "(한국사) 교과서 문제는 사실 지금 집필진 구성이 안됐고 단 한페이지도 쓰여지지 않은 상황 아니겠냐"라며 "그런 상황에서 예단해서 교과서를 친일이니 독재니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대표는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역사인식이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져서 거대한 절벽을 마주한 것 같은 암담함을 느꼈다"고 말해 양측의 이견차가 첨예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 처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11월 중순까지 처리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내 처리 등을 여야 지도부에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법안과 관련, "17년 만에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인 만큼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노동개혁 5개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연미란 기자

못믿을 외국 증권사… 주가 올린 후 '개미'에 넘겨

골드만삭스 등 주가조작 세력 11명 구속 기소
기업 내부 정보로 차명계좌 통해 15억 챙겨

외국계 자산운용사 임직원 등 기관투자자들이 시세조종 세력과 손잡고 주가조작에 가담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외국계 자산운용사 상무는 주가조작뿐 아니라 내부 투자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며 거액을 챙기는 등 경제범죄를 저질렀다.

서울남부지검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옛 골드만삭스자산운용(현 골드만삭스투자자문)의 전 자산운용 상무 김모(47)씨와 다이와증권 전 이사 한모(44)씨 등 기관투자자와 주가조작 세력 1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골드만삭스자산운용에서 일하던 2011년 10월 8000만원을 받고 시세조종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린 코스닥 상장사 동양피엔에프의 주식 15만주를 다른 기관투자자에 처분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을 받고 있다.

한씨는 다이와증권 재직 시절인 2010년 8월 또 다른 주가조작 세력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인위적으로 부양한 코스닥 상장 업체 티플랙스의 주식 12만주를 처분하도록 알선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한씨와 김씨는 시세조종 세력이 가격을 부풀린 주식을 고점에서 한 번에 대량으로 팔아치워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펀드매니저들에게 연결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기업 내부 투자 정보를 이용해 거액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1년 3월~2012년 10월 골드만삭스의 내부 투자 정보를 활용해 차명 계좌 5개를 통해 22개 주식 종목을 미리 사들이거나 팔면서 15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주식을 대량 매수하거나 매도하게 되면 주가가 요동치는 점을 이용해 제 주머니를 채운 것이다.

이러한 외국계 금융사 기관투자자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것은 이른바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였다.

기관투자자가 주가조작 세력의 청탁으로 주식을 사면 시장에서는 호재성 정보로 인식해 개인투자자들이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며 큰 손해를 입게 된다.

펀드매니저가 이런 주식을 사들여도 역시 간접투자를 한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글로벌 공신력과 인지도를 지닌 외국계 금융사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확인했다"며 "골드만삭스자산운용 미국 본사가 준법감시팀과의 협의를 통해 재발 방지대책을 시행하기로 약속하는 등 이번 수사가 금융시장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종훈 기자 fun@metroseoul.co.kr

차기 검찰총장 16~17기서 하마평… 후보군 28일 윤곽

추천위, 3~4명 후보군 압축
김수남·박성재·이득홍 등

12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진태(63·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 후보군이 오는 28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고위직에 포진한 사법연수원 16~17기에서 배출될 가능성을 크게 점치고 있다.

2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첫 회의에서 김 총장의 뒤를 이를 후보군을 선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검찰과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천거 받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천거된 후보군은 현직 고검장급 검찰 고위 간부부터 검찰 출신 변호사 등 10여 명이다.

법무부는 후보군 선정을 앞두고 천거된 후보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재산과 병역 사항 등 검증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추천위 위원장인 김종구 전 법무부 장관은 검증 자료를 토대로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천거할 총장 후보자들을 논의한다.

법조계에선 그간 관행에 따라 추천위 첫 회의에서 총장 후보군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규상 후보군이 '3명 이상' 인만큼 첫 회의에서 3~4명 정도가 유력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홍복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안세영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과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참여하게 된다.

후보군이 3~4명으로 압축되면 김 장관은 이들 중 1명의 후보를 결정,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김 총장의 임기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르면 이달 말에서 늦어도 다음 달 초에 제청될 것으로 보인다. 제청된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에 임명된다.

차기 총장은 사법연수원 16~17기에서 배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이들이 현재 검찰에서 고검장급 이상의 고위직에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대구·경북(TK) 출신인 김수남 차장과 박성재 서울지검장, 이득홍 서울고검장 등이다.

이밖에 현재 검찰에 몸담은 16기 인사에는 김수남(56·대구) 대검차장과 이득홍(53·대구) 서울고검장, 임정혁(59·서울) 법무연수원장이 있다. 17기에는 박성재(52·대구)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경수(55·경남 진주) 대구고검장, 조성욱(53·부산) 대전고검장, 김희관(50·전북 익산) 광주고검장 등이 있다. 17기로 검찰에서 퇴임한 인사 중에는 검찰 내 대표 '특수통'으로 꼽히는 최재경(53·경남 산청) 전 인천지검장이 거론된다.

/연미란 기자

인사혁신처

'소극행정' 공무원 징계 강화하기로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근절하기 위해 '소극행정'을 한 공무원의 징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의 소극행정을 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경우 성·금품·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와 마찬가지로 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정부 각 부처 민원센터에 소극행정 불편신고 전담반도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는 징계 감경과 면책, 인사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일단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을 하고, 적극행정을 이유로 중앙행정기관장 표창을 받은 5급 이상 공무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포상휴가,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 혜택을 부여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적극행정 우수기관을 선정해 시상하고, 사례집 등을 만들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연미란 기자

김태현 "대선개표 조작은 불가능"

중앙선관위원 청문회

김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사진)는 22일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이 '5·16'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쿠데타라고 (서면질의에서) 답변했다"면서도 "근본적으로 군사쿠데타이지만 나중에 경제적 발전을 이룬 점을 참작해 혁명적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의 18대 대통령선거 개표부정 의혹 제기에 대해선 "대선 개표조작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몫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선 개표조작 의혹 제기에 대해 묻는 질문에 "(강 의원 주장은) 적절치 않은 지적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대 총선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농어촌 지역대표성 문제가 논란이 되는데 대해선 "제 개인적 생각은 지역대표성보다는 인구가치의 등가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이) 지역대표성에 문제가 된다는 내용은 알지만 현재는 인구가치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채택해서 획정위에서 합리적 안을 만들어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미란 기자

건국대, 보츠와나 대통령에 명예박사 학위

국가 교류협력 증진 기여

건국대학교는 아프리카 정치경제 발전과 한-보츠와나 교류협력 관계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아프리카 보츠와나공화국 세레체 카마 이안 카마(Seretse Khama Ian Khama) 대통령에게 명예 정치학 박사학위를 수여했다고 22일 밝혔다. 보츠와나는 한-보츠와나 정상회담을 위해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했다.

수여식이 열린 21일 송희영 총장은 "카마 대통령은 안정적인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꾸준한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이끈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의 관계 개선과 교류증진에 크게 기여해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말했다.

세레체 카마 이안 카마 보츠와나 대통령(가운데)이 21일 오후 건국대에서 송희영 총장으로부터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송 총장(왼쪽),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건국대

이안 카마 대통령은 "국가 건설에 앞장서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 이념과 오랜 역사를 가진 한국의 건국대학교에서 명예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게 돼 영광"이라며 "오늘 이 학위는 나 자신이 받는 것이 아니라, 보츠와나와 국가를 위해 항상 헌신하고 노력하는 국민을 대표해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미란 기자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처음처럼
100%
처음처럼
부드러운 17.5도
가을을 물들이는
부드러운 한 잔
부드러운 소주의 처음, 처음처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 한국 대표기업 3분기 성적 명암 |

SK하이닉스 7분기 연속 '1조클럽'

영업익 1조3834억 기록 작년 동기比 6.3% 증가

모바일 제품 판매 확대 우호적 환율 영향 커

SK하이닉스가 7분기 연속 영업이익 1조원 이상을 달성하며 그룹 내 효자 계열사로 올랐다. 올 3분기 메모리 가격이 하락했지만 모바일 제품 판매 확대와 우호적인 환율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조3832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SK그룹에 편입된 지 3년밖에 안됐지만 유일하게 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 이상인 계열사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조9250억원으로 14.2%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1조483억6200만원으로 4.3% 감소했다.

특히 모바일용 제품 판매 확대와 우호적인 환율에 힘입어 매출은 전분기보다 6.2% 늘었다. D램과 낸드플래시 출하량은 전분기에 비해 각각 11%, 15% 증가했으며 평균판매가격은 11%, 15% 하락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시장이 연말 이후 계절적 비수기에 진입하고 3분기 우호적이었던 환율 효과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환율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김준호 SK하이닉스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은 이날 진행된 컨퍼런스콜에서 "4분기 전체적으로 봐서는 미국 금리 인상 기대가 12월말까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1150~1160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며 "환율이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면 3분기 대비 환율 변동 폭은 큰 게 아니기 때문에 4분기에 환율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기적으로는 D램은 채용량 증가와 함께 DDR4 및 LPDDR 제품의 확산에 힘입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공정 전환 등에 따른 제한적인 공급으로 견조한 수급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낸드플래시는 기기당 채용량 증가 및 SSD 시장 확대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SK하이닉스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 D램 수요에 적기에 대응하고 프리미엄 제품인 DDR4와 LPDDR4 제품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낸드플래시의 경우 10나노급 TLC(트리플레벨셀) 제품의 원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연내에 3D 3세대(48단) 제품을 개발 완료하고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를 비롯한 솔루션 라인업을 확대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3D 시장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준호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은 업계에 불고 있는 인수합병과 경쟁구도 변화에 대해 "3D 낸드 시장은 초기 단계이므로 계획대로 개발을 완료하고 시장에 진입한다면 한 단계 높은 위상을 확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대우조선·삼성ENG, 대규모 적자

대우조선, 5조원대 손실 中 조선업 빠르게 추격

삼성ENG, 1조원대 적자 프로젝트 수행 역량 부족

한국 조선 업계를 이끌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한국 대표 에너지기업 삼성엔지니어링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은행 실사를 받은 대우조선은 당초 예상보다 손실 규모가 커져 올해 영업손실만 5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인 영업이익은 2017년에 이르러서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우조선의 올해 적자 예상폭은 상반기에 3조2000여억원, 하반기에 2조1000여억원이다. 당기순이익도 4조8000여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추측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면서 실적 악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우리 조선업의 경쟁력은 세계적인 수준이어서 업황만 회복되면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영국 조선해양 전문 시장조사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수주 잔량 세계 1위는 대우조선해양(129척)이고 2위는 현대중공업(100척), 3위는 삼성중공업(89척)이었다. 부가가치가 높은 심해 해양플랜트 건조 기술력도 세계적으로 이들 '빅3'만 보유하고 있다.

홍기택 KDB산업은행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회사다. 기술력을 요구하는 LNG선과 특수선에서도 세계 1위"라며 회생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특히 조선업이 10년마다 호황을 누린다는 '10년 주기설'도 염두해두고 있다. 2007~2008년 호황에 이어 2017~2018년 또 다시 호황을 누릴 것으로 보는 것이다.

<관련기사 11면>

한편, 삼성엔지니어링은 22일 공시를 통해 올해 3분기 매출액 8569억원, 영업손실은 1조512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3분기 적자 이유로 ▲프로젝트의 대형화와 복합화 등 수행환경의 변화에 대한 프로젝트 수행준비와 역량 부족 ▲중동정세 불안 등 예상치 못한 리스크 상황의 발생 ▲저유가 장기화로 인한 발주처의 어려움으로 공기지연 및 추가공사 발생, 정산합의 난항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재무 안정화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 안정화를 위해 2016년 3월까지 1조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장부가 3500억원의 상일동 사옥매각 등을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하겠다는 장래 계획을 공시했다. 또 유상증자와 관련한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도 소집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 SUHD TV, '미디어 아트 캔버스' 되다

삼성전자는 내달 13일까지 광주 중외공원 내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진행되는 '2015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 SUHD TV를 미디어 아트 캔버스로 활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165.1㎝(65인치) SUHD TV 5대를 연결해 만든 대형 화면을 통해 한국화의 거장 허달재 화백이 먹을 사용해 매화가지를 그리고 미디어 아티스트 진시영 작가가 시민들이 보내온 3030개의 꽃 사진을 매화 대신 접목시킨 디자인 플라워 프로젝트가 전시된다.

/정은미 기자

삼성전자 '기어S2' 상해 월드투어 개최

21일 중국 상해 히말라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삼성 기어 S2 월드투어' 행사에서 패션 모델들이 '기어 S2'를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삼성 기어 S2의 중국 출시를 기념해 중국 상해 히말라야 컨벤션 센터에서 미디어와 파트너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 기어 S2 월드투어 행사를 개최했다. 삼성 기어 S2는 중국에서 23일부터 온라인 판매가 시작되며 매장 판매는 30일 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제주항공, 업계 최초 선정

개인 성장·역량 강화 지원

애경그룹 계열의 국내 최대 규모의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이 우리나라 항공업계 최초로 '2015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선정됐다.

제주항공은 10월22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4회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시상식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제주항공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GWP)은 신뢰경영의 실천을 통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회사를 선정하는 제도다. 이는 '미국 포춘 100대 기업'을 비롯해 유럽연합, 중남미, 인도, 일본 등 전 세계 45개 국가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며 50개 국가의 기업 결과와 자사 데이터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다.

심사는 구성원들의 믿음, 존중, 공정성, 자부심, 재미의 요소를 평가하는 1차 심사, 구성원들의 서술평가를 통한 2차 심사, 사내문화 공적서를 통한 3차 심사 등 총 3차례에 걸친 심사로 선정했다.

제주항공은 구성원들이 개인 또는 가족생활과 조직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사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어강좌 및 사이버강좌를 지원하는 등 구성원들이 개인의 성장과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편, 제주항공은 지난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올 6월에는 '국가 지속가능경영대상' 노사협력부문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LG전자, '프리스타일 미니' 냉장고 출시

22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모델이 김치냉장고와 냉장고를 결합한 신개념 냉장고 '프리스타일 미니'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LG전자가 김치냉장고와 냉장고를 결합한 신개념 냉장고 '프리스타일 미니'를 22일 출시했다.

프리스타일 미니는 LG전자가 지난해 4월 국내시장에 첫 선을 보인 '프리스타일' 냉장고의 후속작이다. 용량을 836ℓ에서 445ℓ로 줄여 김치 보관량이 많지 않은 1~2인 가구에 적합하게 만들었다. 폭도 21㎝ 줄여 좁은 공간에도 설치가 용이하다.

프리스타일 미니는 상·중·하 냉동 구조로 메탈 소재 디자인을 채택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했다. 가격은 출하가 기준 234만원이다.

/정은미 기자

동양시멘트, 삼표계열사로 새 출발

금융통이 제조CEO로… 최병길의 무한도전

<동양시멘트 신임 대표이사>

우리은행·금호생명 역임

동양시멘트가 삼표그룹 계열사로 새출발을 한다.

동양시멘트는 22일 삼척공장 강당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최병길 삼표산업 대표(62)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삼표그룹은 지난달 동양시멘트 지분 54.96%를 7943억원에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동양시멘트의 신임 대표이사를 맡은 최병길 사장은 1953년 대구 출신으로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우리은행(옛 한국상업은행)에 입사해 2003년 우리은행 부행장을 거쳐 2005년 금호생명보험으로 옮긴 뒤 부사장, 대표이사까지 역임한 은행(재무)통이다. 지난 2010년 삼표로 자리를 옮겨 재무전략담당 사장과 대표이사 사장(2011년)을 맡으면서 동양시멘트 인수 과정은 물론, 동양시멘트 하청 근로자 노동조합과의 협상을 주도했다. 2010년 12월부터 삼표 대표를 맡아왔다.

이로써 동양시멘트는 삼표그룹 계열사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됐다. 삼표그룹은 동양시멘트에서 생산된 시멘트를 건설소재와 자원재활용 사업 등 자체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조달 원가를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요 생산시설이 해안가에 위치한 동양시멘트 경쟁력을 앞세워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 대표는 "삼표그룹과 동양시멘트는 서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로 수직계열화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선택과 집중으로 건설기초 소재 관련사업으로의 확장을 지속해 2020년까지 압도적인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최고의 회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사장은 "삼표그룹과 동양시멘트는 이제 한 배를 탄 운명공동체로서 혁신과 인재양성 그리고 창의와 도전정신이 충만한 기업으로 진화해나가야 한다"라며 "임직원들은 생산성과 수익성 향상을 위해 각 부문의 역량 강화와 경쟁력 제고에 온 힘을 다해 달라"라고 말했다.

동양시멘트는 주요 생산시설이 삼척을 비롯한 해안지역에 위치해 물류비 측면에서 원가경쟁력과 수출 물량 증대를 통한 고정비 경감 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삼표그룹은 시멘트의 최대 수요자인 동시에 건설소재분야와 자원재활용 분야의 선두주자이다.

한편, 이날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최병길 사장 외에 이정수 사장, 정대현 부사장, 강형규 부사장, 김종오 부사장, 정한열 상무, 정진호 상무보 등이 새롭게 동양시멘트 임원으로 선임됐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22일 최병길 동양시멘트 대표이사가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심장으로 돌아온 '이보크'

랜드로버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

날렵한 디자인의 외관 업그레이드 성능 선봬

랜드로버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신형 엔진을 달고 돌아온다.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는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를 이달 말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날렵해진 디자인의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 등 새로워진 외관과 최첨단 인제니움 엔진 등 업그레이드된 성능으로 선보인다고 랜드로버는 설명했다.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핸즈프리 테일게이트 기능과 고해상도 서라운드 카메라 시스템 등도 차별화된 특징이다.

이번 신차의 라인업은 2.0ℓ 터보 인제니움 디젤 엔진을 탑재한 5도어 SE, HSE, HSE 다이나믹 모델과 2.0ℓ 터보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5도어 HSE와 쿠페형 3도어 HSE 다이나믹으로 구성된다.

재규어 XE에도 장착된 2.0ℓ 터보 인제니움 디젤 엔진은 기존 엔진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6% 줄이고 연비는 21% 개선했다. 최대 180마력의 파워와 43.9kg·m의 토크를 발휘한다. 연료를 연소실에 정밀하게 분사하는 시스템으로 엔진 소음을 혁신적으로 줄였다는 것이 랜드로버 측의 설명이다. 2.0ℓ 터보 가솔린 엔진은 최대 240마력, 34.7kg·m의 토크의 성능을 갖췄다.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10월말부터 판매되며 가격은 6600만~9000만원이다.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디젤 모델이 배출가스 기준 위반으로 7월부터 판매 정지됐는데, 신차 출시로 약 4개월만에 판매가 재개된다.

/양성운 기자 ysw@

기아차 'K5 행복시승차 프로그램' 실시

기아자동차는 22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약 2달간 수도권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 10여곳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K5를 무료로 시승할 수 있는 'K5 행복시승차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는 22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약 2달간 수도권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 10여곳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K5를 무료로 시승할 수 있는 'K5 행복시승차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K5 행복시승차 프로그램'은 올해 초 기아자동차와 LH가 체결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이동권 개선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의 이동복지를 증진하고 교통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아차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기아자동차는 현재 운영 중인 기존 행복시승차에 신형 K5 10대(디젤 모델: 7대, 가솔린 모델: 3대)를 추가 투입하고 광명시, 고양시, 남양주시, 수원시, 성남시, 인천시 소재 임대아파트 아파트 단지 거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용 시간은 6시간으로 제한하며 유류비는 이용자가 부담해야한다.

'K5 행복시승차 프로그램' 이용을 원하는 해당 아파트 거주민은 행복카 홈페이지(http://happycar.co.kr)에서 회원가입과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원하는 시간에 차량을 예약하고 사용하면 된다.

기아자동차는 서울 15개 단지, 경기 43개 단지에 있는 LH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약 8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모닝 53대 ▲K3 15대 ▲카니발 1대 등 총 69대의 행복시승차를 운영 중이며 입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기아자동차는 행복시승차 프로그램 외에도 아파트 거주민을 대상으로 차량 무료 점검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며 시승 차종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주거공간에 기반한 카쉐어링 사업 활동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현대차 – 그린카 "신형 아반떼 무료시승하세요"

현대자동차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국내대표 카셰어링 업체인 그린카와 연계해 무료로 신형 아반떼를 시승해볼 수 있는 '신형 아반떼 무료시승 이벤트(Avante Experience with greencar)'를 운영한다.

현대자동차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국내대표 카셰어링 업체인 그린카와 연계해 무료로 신형 아반떼를 시승해볼 수 있는 '신형 아반떼 무료시승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시승 이벤트를 위해 전국 주요 도시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과 대학가 등 총 120개 주요지역에 '아반떼 그린존'을 운영해 신형 아반떼의 주요 고객층인 2030세대가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참가 신청은 '그린카'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사이트(www.greencar.co.kr)에서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고 시승을 원하는 시간과 지역을 선택하면 최대 5시간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시승예약은 23일 오후 1시부터 가능하며 시승은 개인당 1회로 제한, 유류비는 1㎞당 150원으로 개인 부담이 필요하다.

현대자동차는 우수 체험기를 작성해 SNS에 올리는 고객들의 경우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 등 소정의 경품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관련 이벤트를 운영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두산, 부산그린에너지에 2800억원 규모 연료전지 공급

두산은 부산그린에너지가 발주한 부산연료전지발전소용 연료전지 공급과 관련해 설계·시공(EPC) 업체인 삼성물산과 계약을 체결하고, 부산그린에너지에 연료전지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두산은 또 부산그린에너지와 연료전지 유지보수와 관련한 장기 서비스 계약(LTSA)도 곧 체결할 예정이다. 두 건의 총 계약금액은 약 2800억원이다.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에 전기와 난방열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되는 부산연료전지발전소는 PAFC(인산형 연료전지) 방식으로 총 용량은 30.8MW다. 2017년 초 발전소가 완공되면 연간 25만 MWh의 전기를 생산해 부산 해운대구 좌동 지역주민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동시에 4만2000여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난방열을 공급하게 된다.

/양성운 기자

기능은 프리미엄급… 가격은 중저가… ‘착한 폰’ 열풍

30만원대 ‘넥서스5X’… 20만원대 ‘갤센스’

출고가 최저 47만5200원 ‘USB C타입 포트’ 적용

음향 강조 레노버 ‘팹플러스’ 가성비 좋은 SKT ‘루나’ 인기

스마트폰 값을 부담스러워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전에 없이 활발해지고 있다. 기술 발달로 사양이 상향 평준화된 영향도 있다. 대리점 판매원들도 이제는 고객에게 ‘웬만하면 쓸만하다’며 중저가 스마트폰을 권한다. 지원금을 감안하면 20만~30만원 수준에 살 수 있는 제품들이다.

쓸만한 중저가 스마트폰의 대표 제품이 구글 ‘넥서스5X’다. 지난 20일 정식 출시된 넥서스5X는 구글의 차세대 운영체제(OS) ‘마시멜로’를 최초 탑재한 스마트폰이자 가장 최

구글 ‘넥서스 5X’

레노버 ‘팹플러스’

적화된 기종이다. LG전자와 손잡고 만든 하드웨어 성능도 프리미엄폰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 4K UHD 동영상 촬영과 ‘USB C타입’ 포트를 적용해 연결 편의성을 높였다.

이는 중저가 스마트폰 열풍을 본 국내 이동통신 3사 모두가 넥서스5X를 취급한 이유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고 판단한 것이다.

LG유플러스와 KT는 출시 당일부터 ‘출고가 인하’ 카드를 썼다. 16GB 모델은 47만5200원, 32GB 모델은 53만5700원이다. 3만3000원 내린 가격이다. 3만원대 최저 요금제를 선택해도 30만원 초반대에 구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높은 지원금으로 구입 부담을 덜었다. 10만원대 최고 요금제 기준으로 16GB 모델(출고가 50만8200원)은 12만8700원, 3만원대 최저 요금제로는 37만48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최신 중저가폰 가운데는 영상, 게임 등을 즐기는 고객을 대상으로 나온 제품도 있다. 지난 20일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서 단독 출시된 레노버 ‘팹플러스’는 17.27㎝(6.8인치) 대화면에 고품질 음향 기능을 강조한 제품으로 39만9000원이다.

각 이동통신사별 주력 중저가 제품도 있다. 지원금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거나 단독으로 저렴하게 출시하는 제품이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인기를 얻은 SK텔레콤의 전용 스마트폰 ‘루나’는 최저 요금제를 사용해도 지원금을 받으면 33만원에 살 수 있다. 13.97㎝(5.5인치) 풀HD 디스플레이와 2.5㎓ 쿼드코어 모바일프로세서, 3GB 램(RAM)등 사양도 프리미엄급 못지 않다는 평가를 받으며 인기몰이 중이다.

KT는 갤럭시센스를, LG유플러스는 LG클래스를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두 제품 모두 최저 지원금을 받아도 2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이다.

중저가 스마트폰 돌풍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KT경제경영연구소의 조사 결과, 향후 중저가폰 구매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소비자가 조사 대상의 절반(51.6%)을 넘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가격이 부담스러워도 쓸만한 제품이 없어서 결국 프리미엄 제품을 구입하던 고객군이 가격대비 성능이 합리적인 중저가 스마트폰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넷마블, 스타트업 지원 200억대 펀드 조성

캡스톤파트너스와 MOU 4년 간 집중 투자사 발굴

넷마블게임즈가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젊은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나섰다.

넷마블은 지난 21일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 및 게임·ICT(정보통신기술) 전문 벤처캐피털인 캡스톤파트너스와 함께 총 200억원 규모의 ‘캡스톤 6호 펀드’를 조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펀드는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9월말 조성됐다. 중점 투자 대상은 업력 3년 이내, 연간 매출액 10억원을 넘지 않는 중소·벤처기업 중 대표이사가 39세 이하이거나 만 2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이다.

넷마블은 캡스톤과 함께 향후 4년 간 중점 투자 대상에 해당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가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투자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서울 구로구 넷마블게임즈 본사에서 열린 ‘캡스톤 6호 펀드’ 결성 협약식에는 (왼쪽부터)권영식 넷마블게임즈 대표, 조강래 한국벤처투자 대표, 최화진 캡스톤파트너스 대표가 참석했다. /넷마블

넷마블은 지난해 12월에도 총 17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펀드인 ‘2014 KIF-캡스톤 재도전 IT 펀드(캡스톤 5호 펀드)’ 조성에 참여한 바 있다. 이 펀드는 이미 사업에 실패했다고 평가 받는 기업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주요주주였던 이들의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문경 기자

SKT-에릭슨, 5G 핵심기술 세계 첫 시연

‘네트워크 슬라이싱’ 세계적 관심 기대

SK텔레콤이 글로벌 통신 기술·서비스 기업 에릭슨과 5세대(5G) 핵심기술로 꼽히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시연에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

네트워크 슬라이싱(Slicing)이란 하나의 물리적인 핵심 네트워크를 다수의 독립적인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한 뒤 고객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다. 현재 세계이동통신표준화기구(3GPP) 등 전세계 통신사, 제조사, 관련 기관에서 5G 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 기술로 선정해 본격 연구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 개발과 시연에 성공함에 따라 전세계 통신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사는 지난 21일 경기도 분당에 있는 SK텔레콤 종합기술원에서 증강·가상 현실 등 대용량 콘텐츠를 지저연으로 지원하는 광대역 모바일 서비스, 매시브 사물인터넷(IoT) 기반 서비스, 기업용 솔루션에 특화된 가상의 전용 네트워크를 실시간으로 분리하고 운용하는 데 성공했다.

SK텔레콤과 에릭슨 구성원들이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시연하고 있다. /SK텔레콤

아울러 SK텔레콤은 하나의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가상화해 여러 네트워크로 나눌 때 발생할 수 있는 각 네트워크 간 간섭을 제거하고 데이터 트래픽을 완전히 분리해 네트워크 운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에릭슨의 울프 에발손 최고기술경영자(CTO)는 “현재 5G의 중요한 기술 개발이 구체화되는 매우 흥미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이번에 성공적으로 시연한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은 5G 이동통신 네트워크가 새로운 미래 서비스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으로의 진화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국내외 최첨단 로봇 기술 한 눈에

‘로보월드’ 28일부터 킨텍스

한국로봇산업협회는 국내외 최첨단 로봇 기술을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15 로보월드 국제로봇산업대전’을 개최한다.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 2전시장 9~10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로봇산업협회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제어로봇시스템학회가 주관한다. 또 ‘한국산업대전’까지 합동 개최돼 로봇뿐 아니라 기계, 금속, 부품, 소재 등 연관 산업까지 아우르는 동북아 최대 규모의 로봇융합전시회가 될 전망이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이번 ‘2015 로보월드’는 총 215개 업체가 518개의 부스로 참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정문경 기자

KT, 세계 최대 용량 해저케이블 구축·운용

KT가 아시아와 태평양의 해저 케이블을 통합·관제하는 역할을 맡았다. 단일 통신사로는 처음이다.

KT는 22일 세계 최대 용량의 해저 케이블인 NCP(New Cross Pacific)의 관제센터(NOC)를 유치해 아시아·태평양과 북미 지역에서 급증하는 국가간 인터넷 트래픽의 부하를 분산하고 해저 케이블의 안정적인 운용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총 길이 1만4000㎞, 전송용량 80테라bps의 NCP는 2017년 말 개통된다. KT는 내년 개통되는 1만1000㎞, 38.4테라bps의 APG(Asia Pacific Gateway)와 함께 총 118.4테라bps를 운용한다.

KT가 NOC를 통해 관제하는 118.4테라bps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해저 케이블 총 용량의 27%, 전세계 해저 케이블 총 용량의 11%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1500만명이 HD 화질(8Mbps)의 영상을 동시 시청할 수 있고 700MB 용량의 영화를 1초에 2만여편 전송할 수 있는 용량이다. 국가간 트래픽의 99%는 해저 케이블로 이뤄진다. /정문경 기자

충당금에 울고 웃는 은행… 포스코에 '발목'

3분기 1회성 비용 6000억원 손실 처리
대한전선은 효자 노릇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이 3·4분기에 부실기업 대출 등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돈이 6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예상치 못한 수익이 나면서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짭짤한 과외 수입(배당)을 챙기는 곳도 있다.

22일 삼성증권과 교보증권,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신한지주·하나금융·우리은행·기업은행·DGB금융·BS금융·JB금융·광주은행 등이 3·4분기 회계에 반영해야 하는 일회성 비용은 약 5940억원 규모다.

반면 충당금환입 등 일회성 수익은 1880억원이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은 4060억원의 일회성 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들의 발목을 잡은 곳은 포스코였다.

포스코는 3분기에 주가가 24.7% 나빠졌다. 삼성증권 김재우 연구원은 "3분기 포스코 주가 하락으로 감액손실이 실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은행들이 인식할 감액손실 규모는 1598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전선 매각은 희소식이다. 대한전선은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 PE에 매각됐다. 유상증자로 자본비율이 개선돼 자율협약도 종료됐다. 이로 인해 은행들은 고정 이하로 분류된 대한전선을 정상으로 재분류 함에따라 총 2369억원의 충당금 환입이 예상된다. 다만 회계 반영시기는 유동적이다.

<3분기 은행 일회성요인>

(단위: 십억원)

은행	(+ 요인)	금액	(– 요인)	금액
KB 금융	대한전선 관련이익(net)	28	포스코 감액손	84
			손해보험 미국법인 손실	4
신한지주	비자 마스터 지분매각이익	40	포스코 감액손	44
	대한전선 관련이익(net)	17	신용카드 일시적 연체 충당금	30
우리금융	대한전선 관련이익(net)	43	포스코 감액손	44
			조선사 충당금(교보증권 추정)	10
하나금융	대한전선 관련이익(net)	60	포스코 감액손	20
			통합 위로금(1000 억원 중반)	50
			저당권명 전환에 따른 비용 (800 억원 중반)	40
			통합 광고비 등(1200 억원 중 반)	60
기업은행			사내복지기금 출현	40
			중국법인 환평가손실	48
			모뉴엘 충당금	45
DGB금융			추석상여금	7
BS금융			BNK캐피탈 손실	9
			추석상여금	12
JB금융			광주은행 명퇴 영향	17
광주은행			명퇴비용 88 명	30

/자료=각사, 교보증권 집계 및 추정치

금융사별로는 KB금융은 포스코 감액손실이 84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손해보험 미국법인손실로 40억원 내외의 일회성 비용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분석된다.

대신 대한전선 관련 이익 280억원이 이를 소폭 상쇄할 전망이다.

신한지주는 포스코감액손실과 조선사 충당금으로 740억 원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비자 마스터 지분매각 이익과 대한전선 이익으로 570억원의 일회성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2·4분기 말 기준 신한카드는 비자 및 마스터카드 지분을 각각 555만주 및 35만주 보유 중이다. 이는 현재 주가 기준으로 5172억원 규모다.

아울러 제일모직 주식이 삼성물산과의 주식 교환 과정에서 가치가 상승, 평가이익이 예상된다. 삼성증권은 이 평가이익을 약 952억원으로 추산했다.

우리금융도 포스코와 조선사의 부실로 발생하는 일회성 비용이 540 억원 규모다.

대한전선이익은 약 430억원의 추산된다.

하나금융은 포스코 감액손실(200억원), 통합 위로금(1000억원 중반 중 500억원), 저당권명 전환에 따른 비용(800억원 중반 중 400억원), 통합 광고비 등(1200억원 중반 중 600억원) 등 1700억원 가량의 일회성 비용이 예상된다.

대한전선 관련이익은 약 600억원 규모다.

기업은행은 사내복지기금 출현(400억원), 중국법인 환평가손실(480억원), 모뉴엘 충당금(450억원) 등 약 1330억원의 일회성 비용이 예상된다.

DGB, BS, JB, 광주은행 등 지방금융지주 은행들도 750억원 가량의 일회성 비용을 회계에 반영 할 것으로 보인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대우조선해양 4조원 지원 보류

채권단 "자구계획·노조동의가 우선"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비판

대우조선해양 정상화가 다시 안갯속에 빠져들고 있다.

금융당국과 채권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 전제 조건으로 회사의 고강도 자구계획과 이에 대한 노사의 희생과 동의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금융권의 자금 수혈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적잖았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대우조선의 정상화를 지원하기에 앞서 자구계획 강화와 그 이행에 대한 노조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4조원 안팎의 금융지원을 담은 정상화 지원계획의 시행을 자구계획 마련과 노조 동의서 제출 때까지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선 자구계획 및 노사 동의, 후 정상화 지원 구조인 셈이다.

이 같은 방침은 이날 '서별관회의'로 불리는 경제금융대책회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서별관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청와대 경제수석은 물론 안건 관련 기관장이 참석한다.

관계당국 관계자는 "대우조선 정상화 지원계획은 일단 보류됐다"며 "강력한 자구계획이 없으면 지원하더라도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원에 앞서 보다 면밀한 자구계획과 노조의 동의서부터 먼저 받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입장은 산업은행을 통해 곧 대우조선에 전달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자구계획을 내놓았지만 그보다 강화되고 면밀한 계획이 정상화 지원 착수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며 임금 동결 등 인건비 절감을 포함한 자구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채권단은 대우조선이 올해 2·4분기에만 3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며 부실을 드러내자 자본확충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금융당국과 논의해 왔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두고 '분식회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최대 여신공여기관인 수출입은행이 각각 지난 7월과 9월부터 대우조선에 대한 실사 작업을 벌여 왔고, 이 과정에서 1조원대의 추가 부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이미 채권은행의 출자전환과 신규자금 지원을 포함해 4조원 안팎의 정상화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회사도 자구 노력을 강구해 왔다.

대우조선은 지난 8월 이후 임원 수를 55명에서 42명으로 줄인데 이어 최근에는 근속 20년 이상인 부장급 이상 300~400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달 초부터는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자산도 팔고 있다. 골프장(써니포인트컨트리클럽) 매각 작업은 마무리 단계이고 화인베스틸, 대우정보시스템 등 보유 주식 정리를 추진 중이다.

서울 당산동 사옥은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며, 청계천 본사 건물은 매각하되 재임대해서 쓸 예정이다.

아울러 마곡산업단지 내 연구개발센터 설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용지 대금으로 낸 2000억원을 돌려받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 악재와 부실 경영 등으로 올해 약 5조3000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문호 기자

김용복 농협생명 사장, 신입사원 30명 만나

NH농협생명은 김용복 대표이사가 최근 세종시에 위치한 보험교육원에서 신입사원 30명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화의 시간에서는 소통을 중요시하는 김 대표의 경영스타일대로 격의 없는 대화가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NH농협생명

가전 수리비 보상 '단종보험' 출시

롯데하이마트–롯데손보 '제품보증연장보험' 판매

롯데하이마트와 롯데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단종보험대리점 상품인 '롯데 제품보증연장보험'을 23일부터 판매한다.

양사에 따르면 단종보험대리점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관련 보험상품의 판매자격을 주고 해당 보험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롯데손해보험은 롯데하이마트와 연계해 고객이 구매한 가전제품의 실제 수리비를 보상해주는 '롯데 제품보증연장보험'을 판매한다.

롯데 제품보증연장보험은 △롯데하이마트에서 가전제품(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이하 총 4개 상품에 한함) 구매 후 가입 시 △기존 가전제품 애프터서비스(A/S) 기간 1년에 4년을 더해 총 5년 동안 제품의 실제 수리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4년의 담보 기간 제품가격 1%대의 합리적인 보험료(납입주기 1회 일시납)를 통해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가전제품의 고장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제조사나 제조사에서 지정한 수리업체에 의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손해발생시점의 시가로 보상한다.

다수 제품 가입 시 보험료의 최대 10%를 할인(2대 3%, 3대 6%, 4대 이상 10%)을 통해 보험료에 대한 혜택을 부여한다.

계약자가 부담한 실제수리비를 보상한도 내에서 담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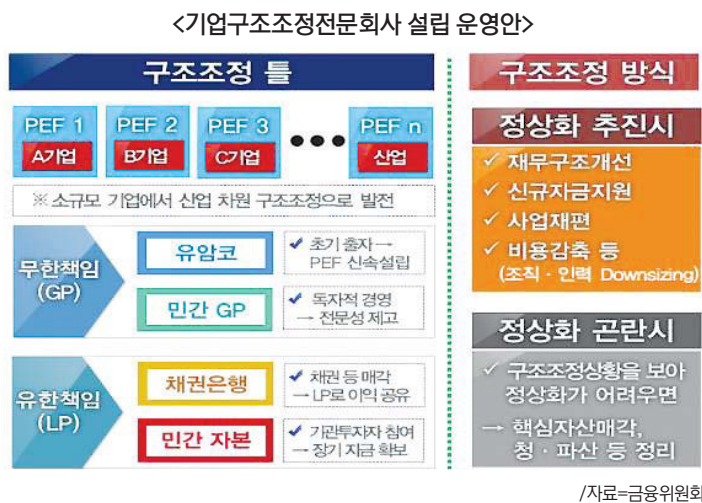
/이정필 기자

4조 실탄 확보 유암코, 구조조정 해결사로

이달 중 추가 출자계획 확정
최대 28조 자금 동원력 확보

부실채권 관리 회사인 유암코(연합자산관리)가 4조원의 재원(출자+대출약정)을 바탕으로 다음달부터 부실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간다.

구조조정은 기업재무안정사모펀드(PEF)를 통해 이뤄지며, 초반에는 중견기업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를 바탕으로 5년 뒤에는 최대 28조원 상당의 구조조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난다.

금융위원회와 유암코, 신한·KEB하나·IBK기업·KB국민·우리·농협·산업·수출입 등 8개 은행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설립·운영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유암코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은행권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09년 6개 은행이 출자해 설립한 부실채권 전문회사다.

당초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신설하려다 시중은행의 부실채권 관리 회사인 유암코를 확대 개편하는 쪽으로 최근 방향을 바꿨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설립 운영안>

/자료=금융위원회

유암코는 '기업구조조정본부'를 신설하고, 여기서 구조조정을 위한 PEF 업무를 전담하기로 했다. 유암코와 채권은행, 민간자본이 힘을 합친 PEF가 특정 기업의 채권·주식을 사들여 구조조정에 나서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유암코가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1조2500억원을 추가 출자하고 2조원의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유암코의 기존 자본과 보유 회사채 등을 감안하면 총 4조2000억원의 '실탄'을 확보하는 셈이다.

유암코가 PEF 전체 지분의 30~50%를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PEF의 자본규모는 8조4000억~14조원 선이 된다. PEF가 구조조정 채권·주식을 액면가의 50~70%로 매입할 경우 총 12조원~28조 원어치를 사들일 수 있다. 즉, 유암코가 최대 28조원 상당의 기업 구조조정을 동시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성규 유암코 사장은 기업구조조정과 부실채권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나종선 전 우리은행 지점장이 맡는 구조조정본부는 투자 대상을 선정하고 실행하는 업무를 맡는다.

구조조정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과 법률·회계 전문가로 구성된다.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선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보상위원회를 만들어 조직 내 성과주의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달 말까지 유암코에 대한 추가 출자 및 대출 약정안을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기업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금융위는 이달 말까지 유암코에 대한 추가 출자 및 대출 약정안을 확정해 내달부터 기업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유암코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채권은행의 구조조정 부담이 줄고 구조조정 의사결정은 단순화되는 장점이 있다"며 "결국 구조조정의 무게 중심을 시장 주도로 바꿔 상시적인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유진투자증권
'유진그룹빌딩'으로 본점 이전

유진투자증권은 오는 26일부터 여의도 유진그룹빌딩에서 업무를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새로 이전하는 유진그룹빌딩은 총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로, 유진투자증권은 금융계열사인 유진자산운용, 유진투자선물, 유진프라이빗에쿼티와 함께 총 11개 층을 사용하게 된다. 영업부는 1층에 위치해 고객 접근성을 높였다. /김보배 기자

전기차 날개단 LG전자 다시날까

GM '쉐보레 볼트 EV' 파트너
"장기 성장동력 확보" 분석

스마트폰 시장에서 'Other(기타)' 취급을 받던 LG전자가 화려한 백조로 떠 올랐다.

22일 주요 증권사들은 LG전자의 목표주가를 일제히 상향했다.

현대증권이 종전 5만3000원에서 6만3000원으로 올린 것을 비롯해 신한금융투자(6만2000원→7만원), 유진투자증권(5만4000원→6만7000원), 하이투자증권(6만원→6만9000원) 등이 목표주가를 올렸다.

GM 차세대 전기차의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되면서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에서다.

LG전자는 GM의 차세대 전기차인 '쉐보레 볼트 EV' 개발의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돼 핵심부품 11종을 공급하게 됐다고 전날 밝혔다.

LG전자가 쉐보레 볼트 EV에 공급하게 되는 핵심 부품과 시스템은 구동모터, 인버터, 차내충전기, 전동컴프레서, 배터리팩, 전력분배모듈, 배터리히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이다.

소현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011년, 2012년 대규모 적자를 낸 파나소닉은 2차전지, 자동차 안전·인포테인먼트, 에너지 솔루션 사업에 집중하며 실적이 빠르게 개선됐다"며 "LG전자도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LG전자 주가는 전날보다 0.75% 하락한 5만3200원에 마감했다. /김문호 기자 kmh@

M&A로 한국 추격하는 中 반도체

칭화유니, 샌디스크 우회인수
웨스턴디지털, 190억 달러에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영역 확장을 꾀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각) 미국 하드디스크 업체 웨스턴디지털은 세계 4위 플래시메모리 업체인 샌디스크를 190억달러(약 21조6410억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웨스턴디지털은 중국 국영기업 칭화유니그룹이 최대 주주다.

그동안 중국은 메모리 칩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칭화유니그룹은 최근 미국 마이크론을 인수하려 했으나 미국 정부의 불승인으로 실패한 바 있다. 샌디스크 인수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최대 규모의 M&A(인수합병) 소식이 전해진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SK하이닉스 주가는 전일 대비 5.05% 하락했다. 양호한 실적발표 소식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시장의 경쟁심화가 우려되며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의 산업 확장에 따른 미래 반도체 산업에 대한 다양한 전망을 내놨다.

진성혜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메모리 산업 진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라며 "국내 메모리 소자 업체들에게는 부정적인 소식"이라고 진단했다.

이정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일(21일) 인텔의 3D 낸드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발표와 함께 웨스턴디지털의 샌디스크 인수 소식은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장기적인 성장성에 위협적일 것"이라며 "국내 반도체 업체 주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특히 SK하이닉스는 해외 경쟁 업체들의 시장 진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룡의 시장 진입이 더해져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SK하이닉스를 포함한 국내의 IT 업체들은 차세대 산업 경쟁에서 글로벌 업체들을 앞서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와 M&A를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이번 합병이 국내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지난해 기준 SSD 시장점유율은 삼성전자 32.6%, 인텔 14%, 샌디스크 13.6%, 마이크론 6.1%, 도시바 5.3% 등이다.

소현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향후 SSD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경우 3D 낸드 시장을 독식 중인 삼성전자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SK하이닉스도 3D 낸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관측했다.

박유악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도 "인수 완료 예정시점은 내년 3분기로 정부승인과 규제검토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인수가 완료되고 SSD를 출시하더라도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샌디스크의 낸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품질 향상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김보배 기자

유안타증권, 금융교육 '3人 3色 세미나' 개최

유안타증권 파이낸스 허브(Finance Hub) 강남점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본사 대강당 3층에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3人 3色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금융교육 세미나는 우선 이준호 Finance Hub 강남점 PB가 '바람직한 금융활용법'을 주제로 강의하고, 이어 재무설계·자산관리 전문회사 '굿앤굿 아카데미'의 전문가들이 강연한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고객의 입장에서 금융을 바라보는 시각과 바람직한 금융활용법을 전달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박홍규 Finance Hub 강남점장은 "수많은 금융정보의 홍수 속에서 각자의 비전에 맞는 투자 방법과 고수익률만 추구하는 투자가 아닌 올바른 투자 전략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얻어 갈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자산관리부터 은퇴 후 인생까지

“KB국민은행의 은퇴설계 서비스로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세요”

국민의 은퇴·노후준비 파트너 **KB골든라이프**

노후설계 시스템
재무계획 및 비재무적 이슈까지
점검하여 노후설계

은퇴·노후설계 상담창구
KB국민은행 전국 850여개
영업점 VIP라운지에서
설계·상담 서비스 제공

행복노후설계 프로그램
행복노후설계 세미나 등
전문가의 은퇴·노후 준비
노하우 전수

다양한 은퇴 전용 상품
미래를 위한 『KB골든라이프
연금우대 통장/적금/예금』부터
각종 연금저축·보험상품까지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구직원 또는 스마트 고객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슈퍼리치, 광화문·여의도 오피스텔 '군침'

금리 하락세… 상가·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 눈독
9월 기준 서울 오피스텔 공급 1만9576호실 규모

KB금융, 부자보고서

초저금리 지속으로 수십억원에서 최대 수백억원의 현금 자산을 보유한 '슈퍼리치'가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시중금리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갇히면서 투자처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22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15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슈퍼리치는 전체 인구의 약 0.3% 수준인 18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최근 슈퍼리치들은 은행 예·적금을 깬 뒤 처분한 자산을 연 5% 안팎의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5억원 이상 예치된 개인 정기예금에서 1조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뭉칫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거래량은 전년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억원 이상의 자산가들은 서울 핵심 업무지역인 광화문, 강남, 여의도, 공덕역 등의 오피스텔에 관심이 높았고, 50억원 미만 자산가들은 홍대나 건대 등 강북지역 대학가 상권과 신도시 역세권 아파트 등을 선호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올해 서울지역에 공급된 오피스텔 물량은 모두 1만9576호실에 달한다.

강서구가 2681호실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1403호실 ▲마포구 1110호실 ▲서초구 829호실 ▲강동구 826호실 ▲강남구 804호실 ▲용산구 743호실 ▲영등포구 463호실 ▲동대문구 460호실 ▲광진구 398호실 ▲관악구 42호실 ▲동작구 29호실 순으로 이어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자산가들은 대박을 터트리기 보다는 잃지 않는 투자를 선호해 서울 도심 대학가나 역세권, 신도시 등 수익성이 보장되는 검증된 지역에서 투자 대상을 물색하는 경향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들어 직접 임대업을 할 수 있는 서울 강남일대의 중소형 빌딩 구입이나 연 4~5%대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서울 도심 환승역세권이나 신도시 등의 상가, 오피스텔 등에 투자 문의가 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연내 공급 예정인 수익형 부동산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현대건설은 이달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8-4블록에서 '힐스테이트 에코 문정' 오피스텔을 분양한다. 전용면적 17~37㎡, 531실로 구성된다.

대우건설도 이달 말 서울 용산구 한강로 391 일대에 '용산 푸르지오 써밋' 주상복합단지 내 상업시설인 '용산 써밋 스퀘어'를 분양한다. 상가는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이며 118개 점포가 일반에 공급된다.

GS건설은 강남구 역삼동에 '역삼자이' 상가를 분양한다. 역삼자이는 개나리 6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분양이 완료된 단지 내 상가다. 지하 3층~지상 5층 55개 점포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조합원 몫을 제외한 25개 점포가 일반에 분양된다.

롯데와 넥센 등 41개 기업체, 약 16만여명의 배후수요를 갖춘 서울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 마곡지구에도 주목할 만한 수익형 상품이 있다.

두산중공업은 소액투자가 가능한 섹션 오피스 '마곡 더랜드파크'를 이달 말 공급할 예정이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수퍼리치들이 주목할만한 주요 수익형부동산

구분	위치	단지명	점포수(실)
상가	서울 용산구	용산 써밋 스퀘어	118
	서울 강남구	역삼자이	25
오피스	서울 강서구	마곡 더랜드파크	596
오피스텔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	퀸즈파크 배곧	664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	힐스테이트 에코 문정	531

◀용산푸르지오 써밋 스퀘어 조감도. /대우건설

쿼드러플 역세권… 교통·교육 인프라 탄탄

GS건설 '마포자이 3차'
이달 말 436가구 일반분양

GS건설이 서울 마포에서 '마포자이3차'(조감도) 아파트를 선보인다.

GS건설은 이달 말 서울 염리동 45번지 일대 염리2구역을 재개발하는 마포자이3차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마포자이3차는 지하4층~지상25층 12개동 규모다. 전용면적 59~119㎡ 927가구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59㎡ 114가구 ▲84㎡ 316가구 ▲119㎡ 6가구 등 436가구이며 선호도 높은 중소형 평형이 98%를 차지한다.

단지는 동서남북 반경 1㎞ 안팎에 전철역이 위치해 있어 서울도심과의 교통 접근성이 좋다. 동쪽으로는 5호선 애오개역, 서쪽으로는 6호선 대흥역, 남쪽으로는 5·6호선, 공항철도 환승역인 공덕역 그리고 북쪽으로는 2호선 이대역이 약 1㎞ 내외에 있는 쿼드러플 역세권 단지다.

단지 인근에 숭문중·고와 일성여고가 있으며, 서울여중·동도중·한서초·용강초·염리초 등의 교육시설도 인접해 있다. 입주는 오는 2018년 9월 예정이다. /박상길 기자

서울시, 망원·신림 등 7곳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신사·논현·북가좌동
관광호텔 건립 통과

서울 망원동을 비롯해 은평구 신사동과 관악구 신림동 등 7곳이 재건축 정비구역에서 풀렸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7곳 해제안을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재건축 정비 해제 대상지는 망원동 439 일대를 비롯해 은평구 신사동 200, 관악구 신림동 1657-33, 남현동 1072, 봉천동 1535-10과 1646, 양천구 신월동 460-5 일대다.

대상지는 정비예정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 구청장이 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봉천동 1535의 10 일대는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요청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면서 해제됐다.

위원회는 이날 중구 신당동 236 일대 신당10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안과 영등포구 문래동5가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도 가결했다.

또 강남구 신사동과 논현동,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관광호텔과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 계획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총 470여실의 숙박공간이 확충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종로구 평창동 일대에 국민대 조형대학을 옮겨와 제3캠퍼스를 조성하는 계획도 통과됐다. 제3캠퍼스에는 지상 2~5층 규모의 건물 3개동이 들어서며 예체능계열 1300여 명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위한 학습·연구공간이 마련된다. /박상길 기자

하이랜드, 하남시 '그린벨트 토지' 매각

3.3㎡ 당 60만~100만원

토지분양 전문회사인 하이랜드는 서울 강동구 지하철 9호선 보훈병원역과 가까운 감북 보금자리지구와 인접한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초이동 그린벨트 토지 12만198㎡를 공개 매각한다고 22일 밝혔다.

분양 관계자는 "강동구 둔촌동과 맞닿아 있어 강남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한 지역이고 적극적인 개발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이라며 "이달 말 정부의 그린벨트 시행령 발표가 예정돼 있어 그린벨트 토지는 이제 투자가치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감북동·초이동 그린벨트 토지 전경. /하이랜드

분양단위는 약 496㎡를 기준으로 개별 등기해 주며 3.3㎡당 60만~100만원으로 선착순 분양한다. /박상길 기자

현대건설

북촌 담벼락 벽화그리기 봉사 지역사회 미관개선사업 앞장

현대건설은 최근 사회적기업 월메이드·서울 종로구 가회동 동사무소와 연계해 서울 종로구 가회동 재동초등학교 담벼락에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현대건설 임직원과 가족 봉사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봉사활동은 북촌의 중심지에 아름다운 벽화를 그려 지역사회 미관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벽화 그리기와 함께 노후 담벼락 보수작업도 진행됐다.

현대건설 임직원과 가족봉사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현대건설

현대건설은 외국인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북촌 관광객 안내센터 옆에는 전통가옥 형상을 띤 포토존을 제작해 한국 전통가옥의 아름다움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다음 달 중순에는 종로구 창신동 낙산공원 인근 종로종합사회복지관 담벼락에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연 1회 이상 지역사회 미관개선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북촌은 지난해 외국인 방문객 통계자료 기준 약 24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했고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약 22%가 방문하는 관광명소"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미관개선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MBK "신규출점·쇼핑몰 등 홈플러스 1兆 투자"

주식양수도 계약 마무리… 노조는 고용보장 요구

테스코와 사모투자펀드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주식양수도 계약이 22일 완료되면서 MBK는 향후 2년 동안 1조원의 투자계획을 밝혔다. 대형마트 신규 출점, 기존 점포 리모델링, 온라인 비즈니스 확대 등이 골자다.

하지만 이날 홈플러스 노조 간부 200여명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MBK 본사빌딩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MBK가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MBK가 홈플러스 인수자로 확정된 이후 노조는 지속적인 대화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대화가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MBK 측은 매각이 완료되기 전까지 "홈플러스 인수 작업이 끝나지 않아 대화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이에 김기완 홈플러스 노조위원장은 "주식양수도가 계약이 모두 완료됐으니 MBK는 이제 직접 고용보장 등에 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홈플러스 경영진들이 지속적으로 노조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노조는 대주주인 MBK와 대화를 원하고 있어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임금협상 타결 또한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결의대회를 진행하던 조합원 200여명은 오후 2시 40분께 MBK 본사 빌딩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경찰인력 200여명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날 홈플러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 경영진을 비롯한 홈플러스 전 임직원의 고용안정을 약속했다. 또 앞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회사의 가치를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향후 2년간 1조원을 투자해 대형마트 신규 출점, 기존 점포 리모델링, 온라인 비즈니스 확대 등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계획을 내놓았다.

22일 김기완 홈플러스 노조위원장(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조합원 200여명이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MBK 본사 빌딩 앞에서 결의대회를 벌이고 있다.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은 "홈플러스의 주역이 2만6000명 임직원인 것은 변함이 없다"며 "고객, 직원, 협력회사, 사회 모두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성장모델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또한 노조는 부산 아시아드점이 폐쇄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홈플러스 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시 부산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협약서 상에 명시돼 있는데 홈플러스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홈플러스 관계자는 "대주주가 변동됐을 뿐 홈플러스는 앞으로도 아시아드점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계획이다"며 "2001년 부산시와 체결한 실시협약 주체도 홈플러스였기 때문에 대주주가 MBK로 바뀌었다고 부산시의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시는 아시아드점의 '관리운영권 회수'를 홈플러스에 통보한 상태다. 이 지점에서는 1000여명의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1999년 테스코가 설립한 홈플러스는 현재 대형마트 141개, 슈퍼마켓 375개, 327개 편의점·홈플러스 베이커리, 9개의 물류센터, 아카데미 등을 보유한 대형마트업계 2위 기업이다.

/정용기 기자 yonggi@metroseoul.co.kr

내년부터 식품 'MSG' 표기 못한다

줄임말 사용 전면 금지

앞으로 식품의 용기·포장에 식품첨가물을 표시할 때 줄임말 표기가 전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을 표시할 때 식품첨가물공전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개정으로 'L-글루타민산나트륨'(Monosodium L-glutamate)을 MSG로 줄여서 표시할 수 없게 됐다.

개정안에는 '~수', '~워터', '~물'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는 음료제품은 먹는 물과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주표시면에 혼합음료 등의 식품유형을 표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원재료명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면 해당 원재료가 많이 함유된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어 원재료명과 함량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고춧가루 함량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추장의 주표시면에 고춧가루 함량 표시를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 제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내년 1월 22일부터, 기존 제품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성현 기자 minus@

패밀리콘서트에 '해외 관광객 1만명' 유치

롯데면세점
맞춤형 문화이벤트 진행

롯데면세점은 24~25일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패밀리콘서트에 외국 관광객 1만여명을 직접 유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관광객들은 잠실에서 열리는 패밀리콘서트 관람과 더불어 롯데면세점 을 포함한 월드어드벤처, 월드타월몰 방문은 물론 올림픽공원과 석촌호수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외국 관광객과 국내 고객들이 대규모 관람에 나서는 이번 패밀리콘서트는 해외 한류 팬들을 위한 맞춤형 문화 이벤트다. 24일 열리는 콘서트에는 '강남스타일'로 열풍을 일으킨 싸이와 김연우, 에일리 등이 무대에 선다. 25일에는 한류스타인 엑소(EXO), 보아, 에픽하이, 레드벨벳, 혁오가 공연하는 콘서트가 열린다. 1만명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엑소(EXO) 팬 미팅도 이날 별도로 진행된다.

패밀리콘서트는 지난 2006년부터 22차례 열렸다. 롯데면세점 측은 패밀리콘서트를 통해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은 약 8만7000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또 이를 통해 총 2400억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추산했다. /정용기 기자

롯데아울렛, 전 매장 '주말 특별할인'

내일부터 사흘간 최대 30%

롯데백화점은 롯데 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을 포함한 16개 아울렛 전점이 동시에 참여하는 주말 쇼핑 행사를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노스페이스, 메트로시티, 톰보이 등의 패션 브랜드와 포트메리온, 로얄알버트, 코렐 등의 주방, 식기 브랜드를 포함한 다양한 상품군의 브랜드가 참여한다. 특히 마쥬, 자딕앤볼테르 등 평소에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 컨템포러리 브랜드와 폴로, 타미힐피거, 레고, 블랙야크 키즈 등도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

또한 김해점, 파주점, 이천점 등 프리미엄 아울렛 3개 점포에서는

2014년 파주점 롯데아울렛 행사 전경 /롯데백화점

주방, 식기 전 브랜드들이 10~20% 추가 할인을 진행한다.

파주점에서는 실리트, 조셉조셉, 차세르 등의 브랜드들이 모인 '키친 갤러리' 매장에서는 기존 40~60% 할인된 상품을 추가 10~20% 할인한다. 김해점에서는 르크루제 무쇠냄비 전 품목 10% 추가 할인 및 스톤웨어 전 품목을 추가 20% 할인해준다. /정용기 기자

티몬
최대 80% 할인 '슈퍼꿀딜'

티몬(대표 신현성)은 올해 연말까지 50여 종의 인기 상품들을 매일 한 가지씩 정상가에서 최대 80% 추가 할인 판매하는 '슈퍼꿀딜'을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이날은 정가 4만8000원의 롯데월드 종일자유이용권을 5000매 한정 1만원에 판매한다. 23일에는 아디다스 슈퍼스타 한정판을 6만9000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슈퍼꿀딜 상품은 소비자들의 상품 검색 횟수와 판매량 등을 바탕으로 선정하며 매일 아침 10시에 선보인다. /김성현 기자

GS샵 '왕영은의 톡톡톡' 내일 첫방송

GS샵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 방송인 왕영은씨가 신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GS샵은 왕영은 고문이 24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20분부터 2시간 동안 '왕영은의 톡톡톡'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왕 고문은 오혜선, 정은진 쇼핑호스트와 호흡을 맞춰 주방, 생활, 이미용, 패션잡화 등을 소개한다. 왕 고문이 직접 상품을 사용·검증한 제품을 왕영은의 톡톡톡에서 만나볼 수 있다.

24일 첫 방송에서는 독일 주방용품 브랜드 '실리트'와 침구브랜드 '까르마 제네시스 필로우 세트'가 소개될 예정이다. /정용기 기자

천지 물로 23조 中 생수 공략… 에비앙 꼼짝마!

농심 중국 신공장, 백산수 수원지를 가다

치매 개선에 효과 '실리카' 시판 생수 중 함유량 최고
2곳서 1분당 1650병 생산
중국 내 인지도 60% 육박 향후 50년 '물의 신화' 창조

농심이 올해 50주년을 맞아 앞으로의 50년을 책임질 먹거리 사업을 생수 사업으로 정했다. 중국 연변에 국내 최대 수준의 신공장을 준공하고 본격적으로 한·중 시장 공략에 나섰다.

농심은 중국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생수 브랜드 '에비앙'을 이기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 국내 최대수준의 생산시설, 연간 125만톤 생산

농심은 최근 중국 연변 백두산 근처에 백산수 신공장(대표 안병식) 준공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백산수 해외 사업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신공장 준공에는 약 2000억원이 투자됐으며 공사 기간만 2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다. 30만3000㎡ 부지에 2개의 생산설비에서 0.5ℓ와 0.2ℓ 제품을 분당 1650병 생산 가능하다.

농심 측에 따르면 현재의 생산설비는 시작 수준이며 향후 생산설비 3개를 추가해 해외 시장공략에나 설 예정이다.

이번 신공장 준설로 농심이 생산 가능한 백산수 생산량은 연간 125만톤 수준이다. 이는 국내 생수 업체 전부를 더한 것보다 높은 양이다. 농심의 수원지인 백두산 내두천으로부터 자연 용출 되는 원수는 하루 2만4000톤이며 이중 2만톤이 백산수 생산에 사용된다.

◆ 전문가도 인정한 수질에 독일 최고 수준 기술 도입

백산수 신공장 생산설비에는 에비앙과, 피지워터 등 글로벌 생수업체에 보틀링(물을 병에 담는 과정) 설비를 공급한 크로네스(Krones)사가 담당했다.

취수부터 시작해 포장까지 모든 생산 과정을 담당한 크로네스사에 따르면 백두산 천지 물이 암반에서 관을 통해 공장으로 이동되는 순간부터 제품이 완성되기 까지 생수가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은 0.1초도 안 된다. 조금의 변질도 없이 백두산 천지 물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이 목표다.

모터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 용출되는 물을 관으로 연결해 공장까지 전달함으로 이물질 개입을 원천 차단한다.

또 치매현상을 줄이는 효과를 가졌다고 알려진 실리카(silica) 함유량이 시판 생수 제품 가운데 가장 높다.

공주대학교 신호상 교수의 연구결과 백산수의 실리카 함유량은 40.6 mg/ℓ로 2위를 기록한 프랑스 볼빅(29.4mg/ℓ)보다 10mg/ℓ이상 높다.

신 교수는 "농심 백산수가 인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네랄 함유량이 국내 시판 생수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며 "마그네슘과 칼슘의 농도비 또한 백산수가 가장 높다"고 말했다.

◆ 목표는 '에비앙', 중국 시장부터 공략한다

백산수 신공장 공장 가운데에는 철도가 관통한다. 농심은 이 철도를 통해 중국 전역에 백산수를 공급한다.

지난해 기준 중국의 생수시장 규모는 약 23조원으로 한국의 38배 수준이다. 또한 중국 내에서는 장백산(長白山)으로 불리는 백두산 광천수의 인기가 높아지며 프리미엄 생수시장의 시장 규모도 수직 상승하고 있다. 중국상업정보망 통계에 따르면 2012년 프리미엄 생수시장 판매액 증가율은 42.6%에 달했다.

농심 측은 중국 내 백산수 인지도는 60%에 달한다고 전했다. 농심은 중국 내 높은 인지도를 이용해 중국 시장 공략 후 유럽 수출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목표는 세계적인 생수 브랜드 '에비앙'을 이기는 것이며 더 나아가 생수 시장을 농심의 향후 100년간의 먹거리 사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백산수의 국내시장 점유율도 신장하는 추세다. 올해 1월 5.3%의 국내 생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던 백산수는 8월 5.8% 점유율로 국내 생수 점유율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매출은 올해 상반기 23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동기 대비 34.5% 신장했다.

농심 박준 대표이사는 "농심이 지난 50년 동안 '면(麵)의 역사'를 써 왔다면 앞으로는 '물의 신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백산수 신공장이 풀가동 되고 중국 내 판매와 해외 수출이 본궤도에 오르면 한국기업의 생수 브랜드가 세계적인 생수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옌벤(중국)=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백산수 생산 장면. 독일의 크로네스사가 설비했으며 분당 1650병의 생산이 가능하다. /농심

새로 나왔어요

미니스톱 '함박&스파게티 도시락' 4000원으로 맛보는 에드워드 권

미니스톱는 22일 쉐프의 에드워드 권과 공동개발한 '함박&스파게티 도시락'(사진)을 출시했다.

이 도시락은 두툼한 함박스테이크와 미트소스를 얹은 스파게티가 메인 메뉴다. 여기에 그릴떡갈비, 치킨 봉, 콘 샐러드, 오이피클, 볶음김치와 후리가케를 뿌린 밥을 함께 구성했다. 가격은 480g 기준 4000원. /정용기 기자 yonggi@

에이스침대 '하이브리드 테크 블루' 필로우 탑 탑재 쿠션감 극대화

에이스침대(대표안성호)는 세계특허 '하이브리드 Z 스프링'이 장착된 신혼침대 '하이브리드 테크 블루'(사진)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테크 블루는 쿠션감을 강화하는 필로우 탑(PILLOW TOP)이 기본 탑재돼 누웠을 때 더욱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김성현기자

농심, 내년 4조원대 음료시장 진출

생수서 음료로 사업 다각화 "코카콜라·롯데칠성 잡을 것"

농심이 생수에서 음료로 사업 다각화에 나선다.

22일 농심에 따르면 백산수 생산공장인 중국 연변공장을 통해 내년 중 음료사업에 진출한다.

안명식 연변농심는 이미 음료 제품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시제품 출시에 이은 시음까지 마무리 했다며 농심의 음료사업 진출을 인정했다.

중국 연변 농심 신공장에서 생산될 음료는 백두산 화산암반수를 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농심 관계자는 "내년 중으로 생산을 검토 중이며 주요 경쟁상대는 코카콜라나 칠성사이다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기준 국내음료시장의 규모는 약 4조원이다. 이중 롯데칠성음료가 2조2650억원으로 가장 점유율이 높고 한국코카콜라의 매출이 1조원으로 전체 시장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음료시장 양대 산맥이 국내 점유율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연변 농심 관계자는 "우리가 자랑하는 백산수를 원료로 생산하는 음료는 기존의 음료와는 차별화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코카콜라아 롯데칠성을 대체하는 제품이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농심의 음료사업 진출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성현 기자

사조대림 선전… 고급맛살 2강 2약 재편

올 6~9월 매출 39% 증가 1위 한성기업 바짝 추격

고급맛살이 사조대림의 효자상품으로 부상했다.

사조대림은 21일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고급맛살 제품의 판매량이 33%, 판매금액이 39%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조대림의 고급맛살 대표제품은 '크라비아'와 '스노우크랩'으로 별도의 조리 없이 간식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조대림은 고급맛살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지난 6월 스노우크랩을 새롭게 선보이면서 관련제품군을 확대한 바 있다.

대림선 스노우크랩. /사조대림

고급맛살의 시장규모는 연간 890억원 수준이며 올해 시장 점유율은 한성기업이 37.7%로 1위를 기록 중이며 사조대림이 31.9%로 뒤를 쫓고 있다. 사조대림은 지난해 중반까지만해도 관련시장 점유율이 20%대 중후반에 불과했으나 고급맛살에 대한 수요 증가가 제품군 확대에 힘입어 올들어 30%대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CJ제일제당과 동원산업이 관련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7.5%, 11.9%로 고급맛살시장은 2강 2약 체재로 재편된 상태다.

사조대림 마케팅팀 이지학 담당은 "대림선 간식용 고급맛살은 최고급 연육으로 만들어 아이들 밥반찬 뿐만 아니라 캠핑, 대학교 MT 등에서 술안주, 간식으로 제격이다"라며 "특히 진짜 게살을 넣어만든 '대림선 스노우크랩'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뜨겁다. 담백한 맛과 촉촉하고 탱탱한 식감으로 앞으로도 많은 인기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한국 P&G, 김주연 사장 선임

한국P&G는 김주연 P&G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베이비 케어 부문 전무(사진)를 내년 1월 1일자로 한국P&G 사장으로 선임한다고 22일 밝혔다.

1995년 한국P&G 소비자시장전략본부(CMK)에 사원으로 입사한 김 신임 사장은 SK-II, 오랄비, 질레트, 페브리즈, 팬틴, 위스퍼 등 다양한 P&G 브랜드를 담당했다. 특히 김 신임 사장은 SK-II 브랜드를 시장에 성공적으로 소개하고, 브랜드의 성장을 견인하면서 한국P&G의 프리미엄 뷰티 비즈니스 확대에 기여한 바 있다. /유현희 기자

지하철 역 미술관 빌려준다

서울메트로, 경복궁역 미술관 내달 20일까지 대관신청 접수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지하 1층에서 운영하는 미술관. /뉴시스

지하철역 안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난 서울메트로 미술관이 대관신청을 받는다.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대표 이정원)는 내달 20일까지 3호선 경복궁역 지하 1층에 있는 '서울메트로 미술관'의 2016년도 대관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메트로 미술관은 1986년 개관해 1관·2관으로 구성돼 있다. 1관은 총면적 595㎡, 전시면적 225㎡이며 2관은 각각 396.7㎡, 150㎡이다. 화강석으로 만들어진 아치가 웅장함을 자랑한다.

관람객을 배려해 조명시설과 냉·난방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무인경비시스템과 폐쇄회로(CC)TV, 강화 유리문 등 최첨단 안전설비도 설치돼 있다.

대관료는 1일 기준 1관 27만5000원, 2관 21만1200원이다. 하루 평균 5만명 이상의 유동 인구로 전시홍보 효과가 높다고 서울메트로 측은 설명했다.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대관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서울메트로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염지은 기자 senajy7@metroseoul.co.kr

미세먼지 차단에 가습 효과까지

한국코와
코와삼차원마스크 5종 얼굴에 꼭 맞는 입체구조 이색 기능으로 취향 저격

코와삼차원마스크 제품들. 한국코와는 뛰어난 성능에 이색 기능까지 더해 고객들의 취향에 맞는 마스크를 선보였다. /한국코와

메르스에 이어 환절기가 다가오며 미세먼지, 알레르기 등으로 마스크를 찾는 고객이 급격히 늘고 있다.

한국코와주식회사(대표 미와 요시히로)는 맞춤형 마스크와 이색 기능으로 무장한 '코와삼차원마스크'를 출시하고 고객들의 취향저격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코와삼차원 마스크는 어린이용, 아쿠아마스크, 뷰티마스크, 허브마스크 등 5가지 종류가 있다.

'어린이용'은 어린이 얼굴에 꼭 맞는 3차원 신형 입체구조다. 입 주위에는 공간을 두어 숨쉬기 편하면서 마스크 옆 부분은 얼굴에 밀착돼 미세먼지와 꽃가루를 99% 차단해준다.

'아쿠아마스크'는 마스크 바깥쪽에 동봉된 보습액을 뿌리면 보습액이 마스크에 흡수돼 가습효과를 낼 수 있는 기능성 마스크다.

'뷰티마스크'는 마스크로 인해 화장이 지워지는 것을 해소한 제품이다. 마스크와 입술이 닿는 부분에 공간을 확보해 메이크업이 묻지 않도록 설계됐다.

'허브마스크'는 마스크 착용 전 톡톡 두드리면 마이크로 캡슐이 터지며 로즈, 자스민 등의 향이 퍼진다. 두드리는 힘에 따라 향의 강약 조절도 가능하다.

한국코와 관계자는 "코와마스크는 일본 점유율 1위의 제품으로 인체공학적인 삼차원 디자인에 더블 필터로 만들어 미세먼지를 99% 차단한다"며 "소비자 맞춤 마스크로 선택이 폭이 넓어진 만큼 환절기 건강을 위해 안전성 입증은 물론, 본인에게 꼭 맞는 맞춤 마스크를 선택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성현 기자 minus@

한국관광公, 벤처 육성·일자리 창출 나서

창조관광 스타트업 페스티벌 오늘 '구글캠퍼스 서울'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는 '2015 창조관광 스타트업 페스티벌' 행사를 23일 '구글캠퍼스 서울'에서 개최한다.

'2015 창조관광 스타트업 페스티벌'은 창조관광 육성펀드 도입과 연계돼 우수 창조관광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집중 육성해 일자리 창출 확대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서비스 분야에서 최초로 개최된다.

창조관광사업 공모전을 통해 발굴·육성한 업체들에서 선별한 우수 창조관광기업의 투자유치 설명회를 선보이는 창조관광기업 데모데이, 투자상담회, 참가자 네트워킹 행사 등이 진행된다.

국내 최초로 데이터 로밍이 필요 없는 글로벌 맞춤형 지도 공급 업체인 '다비오', 위치 기반의 여행일정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노트', 외국인 관광객 대상 모바일 서울트래블패스를 운영하는 '트래블루션' 등 관광분야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기업으로 투자유치를 이끌어낸 기업들이 참여한다.

또한 국내 최초 무슬림관광객 전용 앱을 운용하는 '할랄코리아', 한국 대중교통 이용 외국인 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스앤비소프트', 쇼핑물품 배송 외국어 서비스 제공 업체인 '라이트립' 등 창의적 사업 아이템으로 관광업계에 도전장을 낸 이른바 '수퍼루키'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창조관광기업 데모데이 심사는 창조관광 육성펀드 운용사인 SJ투자파트너스를 비롯해 국내 대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인 본엔젤스,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동문파트너스, 브라더스엔젤클럽 등이 한다.

한국관광공사 강규상 관광벤처팀장은 "그 간 기술이나 제조 기반의 스타트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끌지 못한 관광서비스 분야에 대한 벤처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표적인 투자유치 행사로 브랜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관광 육성사업은 2011년말부터 현재까지 297개 사업을 발굴했다. 170개 업체가 창업해 501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관광분야에 대표적인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염지은 기자 senajy7@

한부모가족, 내일 광화문서 만나요

서울시 '모두하나 대축제' 체험·나눔부스 등 마련

서울시는 한부모가족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2015 모두하나 대축제'를 24일 오전11시 광화문광장(북측 광장 앞)에서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주최·주관하고 ▲P&G ▲홈플러스e-파란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한부모가족 지원 유관기관을 비롯해 민간단체 총 47개 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서울시는 이날 행사에서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역량강화를 위해 기여한 공이 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우수종사자 7명, 우수 자원봉사 1명 총 8명에 대해 서울특별시장표창을 수여한다.

개그맨 김원효의 사회로 진행되는 '2015 모두하나 대축제'에서는 '한부모가족봉사단 출범식' '초대가수의 축하공연' '미니콘서트' '마술공연' 등 온가족이 함께 참여해 즐길 수 있다.

행사장인 서울광화문광장(북측광장 앞)에서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4시까지 ▲체험부스 ▲볼거리부스 ▲나눔부스 ▲권익증진부스 등인 운영돼 참여한 가족 모두가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특히 나눔부스에서는한부모당사자들이 주인공이 되어 나눔바자회를 진행하며 한부모 가족의 권익증진을 위해 양육비문제, 법률문제, 취업(자립)상담, 심리상담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명주 서울시가족담당관은 "늘 두 배의 노력과 사랑으로 자녀양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한부모 가족들이 이번 축제를 통해 잠시나마 힘든 일을 잊고 희망을 가져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염지은 기자

내달 3~15일 '이케아 패밀리데이' 개최

이케아 소프트 토이 그리기 대회 포스터. /이케아

이케아 코리아가 이케아 패밀리 멤버를 대상으로 '겨울 놀이터'를 주제로 '이케아 패밀리데이'를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이케아 광명점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케아 코리아는 행사 기간 동안 소프트토이 그리기 대회와 더불어 새롭게 출시되는 라티오(LATTJO) 컬렉션 소개할 예정이다.

이케아 패밀리데이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케아 소프트토이 그리기 대회는 전세계 어린이들이 자신만의 소프트토이를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로 내달 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한국에서 선정된 20개의 그림은 스웨덴으로 보내지며, 전세계적으로 취합된 그림들 중에서 독창성, 상업성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 후, 총 10개의 그림을 선발해 내년 한정판 소프트토이로 제작하게 된다.

이케아 코리아는 한국에서 처음 진행되는 소프트토이 그리기 대회를 기념하여, 한국에서 선정된 우승자 중 한 명을 내년 봄 스웨덴으로 초청할 예정이다.

스웨덴어로 '재미'를 의미하는 라티오(LATTJO)는 아이와 어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케아의 새로운 놀이용품 브랜드다.

/유현희 기자 yhh1209@

star bag

2년 만의 단독 공연

여성 듀오 **다비치**가 오는 12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연말 콘서트 '윈터 허그'를 개최한다. 2013년 12월 이후 2년 만에 갖는 단독 공연이다. 다비치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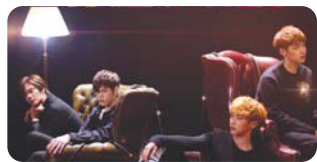
31일 결혼해요

힙합 그룹 배치기 멤버 **탁**(이기철)이 오는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마다 서울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예비신부는 7세 연하의 일반인으로 1년 여 간의 교제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됐다.

타이틀곡은 자작곡

가수 **신승훈** 이자작곡 '이게 나예요'로 컴백한다. 신승훈이 자작곡을 타이틀곡으로 내세운 것은 '사랑해도 헤어질 수 있다면' 이후 13년 만이다. 노래는 오는 29일 자정 공개될 예정이다.

2년 만의 새 앨범

개러지 록 밴드 **이스턴 사이드 킥**이 새 앨범 '굴절률'을 발표한다. 2013년 EP앨범 '추월차로' 이후 2년 만의 새 앨범이다. 오는 12월 11일 레진코믹스 브이홀에서 단독 콘서트도 개최한다.

'론리' 뮤직비디오 공개

밴드 **엔플라잉**이 신곡 '론리'의 뮤직비디오를 22일 자정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별의 아픔을 그린 노래로 멤버들의 감성적인 연기를 담았다. 엔플라잉은 음악 방송 출연으로 컴백 활동에 들어간다.

"지친 마음 달래는 부드러운 보컬"

첫 정규앨범 낸 꽃잠프로젝트

꽃잠프로젝트의 음악에는 듣는 이를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부드러운 보컬을 담은 어쿠스틱 사운드가 지친 마음을 슬며시 달래준다. 편안함과 자연스러움, 그것이 바로 꽃잠프로젝트가 추구하는 지향점이다.

꽃잠프로젝트는 호란과 함께 그룹 이바디에서 활동했던 거정(43), 그리고 신인 김이지(21)로 구성된 듀오다. 현 소속사인 플럭서스 뮤직에서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거정이 오디션에 합격한 김이지와 만나면서 팀을 결성하게 됐다. 팀 이름인 '꽃잠'은 '깊이 든 잠', 그리고 '결혼한 신랑 신부의 첫날 밤'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다. 같은 소속사 밴드 안녕바다의 보컬 나무가 추천해준 단어가 지금의 팀 이름으로 연결됐다.

경력도, 나이도 차이가 많은 두 사람이다. 하지만 그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음악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바디' 출신 거정·신인 김이지 음악으로 경력·나이 차이 극복 자연스러운 작업 앨범에 담아 내달 28일 단독공연 개최

"음악 이야기가 잘 통했어요. 공감대도 쉽게 형성됐죠. 사실 이지와 함께 어쿠스틱 음악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같이 음악을 만들다 보니 지금과 같은 음악이 나오게 됐어요." (거정)

"음악가인 부모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음악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오디션을 통해 고3 때 플럭서스 뮤직에 들어왔고요. 너무 어려서 먼저 많은 사람과 작업을 해본 뒤 나중에 앨범을 내자고 했죠. 그때 오빠가 같이 팀을 하자고 해서 꽃잠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김이지)

지난 7일 발표한 첫 정규 앨범 '룩 인사이드(Look Inside)'는 꽃잠프로젝트가 그동안 해온 음악 작업을 잘 담아낸 음반이다. 타이틀곡 '홈(Home)'을 비롯해 '미스터 맥클레인(Mr. McClain)' '그대는 어디 있나요' 등 총 10곡을 수록했다. 꽃잠프로젝트의 색깔을

잘 느낄 수 있는 노래들이다.

꽃잠프로젝트의 본격적인 활동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어쿠스틱 음악만이 꽃잠프로젝트의 전부는 아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거정의 말이 이를 증명한다. 확실한 것은 어떤 장르가 되더라도 두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음악을 하고 싶다는 것이다. 꽃잠프로젝트의 다양한 매력은 다음달 28일 홍대 앞 웨스트브릿지에서 열리는 단독 공연에서도 만날 수 있다.

"가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음악을 들으면 처음에는 가사가 안 들려요. 어떤 음악의 감성이 듣는 이의 마음을 쑥 스쳐 지나갈 때 호기심으로 가사를 찾아보게 되죠. 그런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부감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자연스럽게 음악을 해야 하고요." (거정)

"듣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음악이 된다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위로가 되는 음악 있잖아요. 그런 음악을 하고 싶어요." (김이지)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플럭서스 뮤직

박보영, 인니에 한류문화 전파

'토토의 작업실' '한국·인도네시아 영화제' 참석

배우 박보영(**사진**)이 CJ CGV와 함께 인도네시아에 한류 문화를 전파한다.

CJ CGV는 오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제1회 인도네시아 토토의 작업실 영화제',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015 한국·인도네시아 영화제'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박보영은 이번 행사의 홍보대사와 특별 멘토로 참여할 예정이다.

박보영은 "'인도네시아 토토의작업실'과 '한국·인도네시아 영화제'가 두 나라의 문화 교류 확대의 작은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개인적으로도 현지 학생들을 격려하고 한류 문화의 전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도네시아 토토의 작업실 영화제'는 CGV 블리츠(blitz) 자카르타 그랜드 인도네시아에서 열린다. 지난 2년 동안 인도네시아 토토의 작업실을 통해 학생들이 완성한 작품 중 우수작 24편이 상영된다.

'2015 한국·인도네시아 영화제'는 '10월 한국 문화의 달'을 맞아 열리는 행사다. 박보영 주연의 '돌연변이'가 개막작으로 상영되며 '암살' '스물' '국제시장' '베테랑' 등 16편의 최신 한국영화가 현지 관객과 만난다. 인도네시아 영화 5편도 스크린에 오른다. SM타운 콘서트와 한국의 오페라, 발레 등 공연 콘텐츠도 함께 상영된다. /장병호 기자

'생활문화' 함께 나눠요

24~25일 '전국생활문화제' 150여개 동호회 한자리에

문화를 함께 나누며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전국 동호인들의 축제 '전국생활문화제'가 24~25일 서울 강북 북서울꿈의 숲에서 열린다.

전국 150여 개의 동호회가 한자리에 모여 문화예술 한마당을 벌인다.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선영)가 지원한다.

'전국생활문화제'는 국민 모두가 문화융성 시대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이 지역, 생활밀착, 주민 주도 방식으로 전환되며 생활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기획됐다.

'전국생활문화제' 개최를 통해 생활문화동호회 활동의 전국적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 간 교류와 소통, 협력, 문화상생을 통해 생활문화 동호회의 건전한 육성 및 문화가치 확산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는 맞은 이번 행사의 주제는 '일상이 이상으로'다.

/염지은 기자

동식물 그림으로 만나는 옛 선비의 성정

간송미술관, DDP서 내년 3월27일까지 '화훼영모전'
김홍도·신윤복 등 고려말 조선조 대표작 한눈에

김홍도의 황묘농접(黃猫弄蝶·노란 고양이가 나비를 놀리다). 여든 살이 되도록 젊음이 변치 말기를 기원하는 그림이다. /간송미술문화재단

간송미술관이 '문화보국(文化保國)' 정신을 느낄 수 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의 다섯번째 전시 '화훼영모(花卉翎毛)_자연을 품다'를 연다. 23일부터 내년 3월 27일까지다.

공민왕, 이징, 윤두서, 정선, 변상벽, 김홍도, 신윤복, 장승업, 신사임당 등 고려 말에서 조선말까지 500여 년 동안 당대를 대표할만한 화가들이 동식물을 소재로 그려낸 작품들이 출품된다.

화훼영모란 꽃과 풀, 날짐승과 길짐승 등 동식물들을 소재로 하는 그림을 말한다. 전통시대 화훼영모화는 산수화나 인물화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다.

선조들은 꽃과 새, 곤충과 물고기들도 자연의 일부임과 동시에 우주만물의 섭리가 함축된 존재로 인식했다. 이를 보고, 기르고, 글과 그림으로 옮겨내면서 자연과 생명의 오묘한 이치를 터득하고 자신의 성정을 함양하고자 했다. 또한 동식물들을 통해 도덕적 이상과 더불어, 무병장수나 입신출세 등과 같은 현세적 욕망을 담아내곤 했다.

화훼영모화는 가장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림 중 하나로 낯설고 어렵게만 여겨지는 우리 옛 그림과 친숙해 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우리 그림이 지닌 아름다움과 그림 속에 담긴 선조들의 이상과 욕망, 삶의 지혜까지도 엿볼 수 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화원(畵員)을 뽑을 때 영모를 3등, 화초(花草)를 4등으로 뽑았다. 간송문화전 제5부에서는 '경국대전'에서 거명한 의미대로 '화훼영모전'이란 이름을 대표 명칭으로 붙였다.

간송미술관이 수장하고 있는 동식물 그림 중에서 각 시기를 대표하는 그림을 가려내 그림을 통해 시대정신과 기법 차이를 한 눈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고려 공민왕(1330-1374)으로 부터 조선왕조 말기의 관재 이도영(1884-1933)까지 550년에 걸친 기간 동안의 변화를 비교 감상할 수 있다.

국보급 문화재들이 골동품 상점에서 헐값에 거래되고 있었던 일제 강점기,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아 20대 초반에 십만석꾼이 된 간송 전형필 선생은 우리민족 문화유산을 지켜내는 것을 자신 일생의 사명으로 삼았다.

그렇게 수집한 문화재들로 1938년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미술관 보화각을 설립했고 현재는 간송미술관으로 남아있다.

성북동에서 1년에 두번, 각각 2주씩만 전시를 해오던 간송미술관은 지난해 3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개관 기념으로 미술관 밖에서 처음으로 외부 전시를 열며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간송 전형필', '보화각', '진경산수화', '매·난·국·죽'에 이은 5번째다.

/염지은 기자 senajy7@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바보 어벤져스 vs 뇌섹남

◆ MBC '무한도전'

토요일 오후 6시25분

'바보전쟁-순수의 시대' 특집을 통해 결성된 '바보 어벤져스'가 연예계 대표 '뇌섹남' 김구라, 전현무와 대결한다. 김구라와 전현무는 '바보 어벤져스'와 만나자마자 독설을 퍼붓기 시작한다. 이에 분노한 '바보 어벤져스'는 꼭 이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종 대결 무대에 오른다.

/정리=장병호 기자

◆ JTBC '송곳'

토·일요일 오후 9시40분

최규석 작가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첫 방송된다. 강자의 '갑'질에 맞서는 우리 주변 '을'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 SBS '애인있어요'

토요일 오후 5시

해강(김현주)은 진언(지진희)에게 "당신으로부터 나와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한다. 그런 둘의 모습을 본 백석(이규한)은 분노한다.

◆ KBS1 '걸어서 세계속으로'

토요일 오전 9시40분

유럽의 역사와 중세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한 나라 체코, 그중에서도 체코의 또 다른 날개로 불리는 모라비아 지방을 찾아간다. 주요 명소와 축제의 현장을 함께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	JTBC	MBN	tvN	올`리브
24일(토)	12:10 국악한마당 13:00 동물의 왕국 14:00 헬로카봇 2 14:30 두리둥실 뭉게공항 3 15:00 2015 대한민국 해군 관함식 15:40 아이디어 대한민국 나는 농부다 16:30 뉴스특보-남북이산가족 상봉 19:10 다큐 공감 20:00 이어령의 백년서재 21:00 KBS 뉴스 9 21:40 글로벌 정보쇼 세계인 22:50 청년 대한민국 벤처는 맛있다 24:30 콘서트 7080	11:30 TOP 밴드 3 12:40 개그 콘서트 (재) 14:15 장사의 신 – 객주 2015 (재) 15:40 슈퍼맨이 돌아왔다 18:05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19:55 부탁해요, 엄마 21:15 연예가 중계 22:35 청춘FC 헝그리 일레븐 23:50 드라마 스페셜 <짝퉁 패밀리>	12:00 MBC 뉴스 12:10 무한도전 스페셜 13:30 그녀는 예뻤다 15:35 MBC 뉴스 15:45 쇼! 음악중심 16:55 우리 결혼했어요 18:20 무한도전 19:55 MBC 뉴스데스크 20:45 엄마 22:00 내 딸 금사월 23:15 마이 리틀 텔레비전 24:40 라디오스타 스페셜	12:00 SBS 뉴스 12:10 육룡이 나르샤 (재) 13:50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5차전 17:30 토요일이 좋다 오! 마이 베이비/주먹쥐고 소림사 20:00 SBS 8 뉴스 20:45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22:00 애인 있어요 23:10 그것이 알고 싶다 24:15 더 랠리스트	10:20 디데이 (재) 11:40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스페셜 13:00 JTBC 뉴스 13:20 썰전 스페셜 (재) 14:45 냉장고를 부탁해 (재) 16:05 비정상회담 (재) 17:40 히든싱어 4 스페셜 19:40 JTBC 뉴스룸 20:30 디데이 21:40 송곳 (1회) 23:00 히든싱어 4	10:00 아침엔 매일경제 11:1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0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15:30 엄지의 제왕 (재) 17:00 시사스페셜 18:20 알토란 (재) 19:40 MBN 뉴스 8 20:3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21:40 속풀이쇼 동치미 (재) 23:00 속풀이쇼 동치미	10:50 집밥 백선생 (재) 12:10 할매네 로봇 (재) 13:3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15:20 수요미식회 (재) 16:20 젠틀맨리그 (재) 17:4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20:20 집밥 백선생 (재) 21:40 SNL 코리아 시즌6 23:3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11:00 오늘 뭐 먹지? 12:00 2015 테이스티로드 13:00 비법 14:10 올리브쇼 2015 15:20 오늘 뭐 먹지? 16:20 2015 테이스티로드 17:20 살아보니 어때? 18:20 올리브쇼 2015 19:30 집밥 백선생 21:00 2015 테이스티로드 22:00 비법 23:20 오늘 뭐 먹지? 24:20 2015 테이스티로드
25일(일)	12:10 전국노래자랑 13:20 스카우트 2 14:10 KBS 슈퍼클래식 16:10 동물의 왕국 16:30 KBS 뉴스 옴부즈맨 17:10 뉴스특보-남북이산가족 상봉 17:40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열린음악회 18:00 경찰의 날 기념 열린음악회 19:10 도전 골든벨 21:00 KBS 뉴스 9 21:40 역사저널 그날 22:30 취재파일 K 23:10 청년 대한민국 벤처는 맛있다 24:10 스포츠 이야기 운동화 2.0	10:30 출발 드림팀 시즌2 11:40 해피 투게더 스페셜 13:05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스페셜 14:25 부탁해요, 엄마 (재) 16:50 해피선데이 19:55 부탁해요, 엄마 21:15 개그 콘서트 22:55 다큐멘터리 3일 23:55 어송포유 24:50 글로벌대기획 요리인류 (재)	10:4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12:00 MBC 뉴스 12:10 출발! 비디오 여행 13:15 화려한 유혹(재) 15:35 MBC 뉴스 15:45 섹션 TV 연예통신 16:50 일밤 <복면가왕/진짜 사나이> 19:55 MBC 뉴스데스크 20:45 엄마 22:00 내 딸 금사월 23:15 시사매거진 2580 24:05 2015 인천 K-POP 콘서트	09:30 TV 동물농장 10:50 백종원의 3대천왕 (재) 12:00 SBS 뉴스 12:10 애인 있어요 (재) 13:15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재) 15:40 SBS 인기가요 16:50 일요일이 좋다 아빠를 부탁해/런닝맨 20:00 SBS 8 뉴스 20:45 웃음을 찾는 사람들 22:00 애인 있어요 23:10 SBS 스페셜 24:10 광복 70주년 특별기획 원드림 원코리아 통일을 노래하다	11:00 히든싱어 4 (재) 13:00 JTBC 뉴스 13:2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4:45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재) 16:10 히든싱어 4 (재) 18:10 비정상회담 (재) 19:40 JTBC 뉴스룸 20:30 송곳 (재) 23:00 김제동의 톡투유 24:20 송곳 (재)	10:00 MBN 뉴스와이드 2부 11:2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00 속풀이쇼 동치미 (재) 15:50 아궁이 (재) 17:00 시사스페셜 18:20 엄지의 제왕 (재) 19:40 MBN 뉴스 8 20:30 속풀이쇼 동치미 (재) 21:40 천기누설 23:00 알토란 24:40 아궁이 (재)	12:30 SNL 코리아 시즌6 (재) 13:50 할매네 로봇 (재) 15:10 집밥 백선생 (재) 16:3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18:20 수요미식회 (재) 19:40 코미디 빅리그 21:30 곽승준의 쿨까당 22:50 문제적 남자 24:2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11:00 2015 테이스티로드 12:00 비법 13:20 오늘 뭐 먹지? 14:20 2015 테이스티로드 15:20 처음이라서 16:20 마트를 헤매는 당신을 위한 안내서 17:20 내친구와 식샤를 합시다 18:40 노 오븐 디저트 2 19:40 비법 21:10 올리브쇼 2015 22:20 셰프의 야식 23:00 오늘 뭐 먹지? 24:00 2015 테이스티로드

'16강 진출' 리틀 태극전사, 3전승 도전

U-17 월드컵

내일 잉글랜드와 B조 최종전 '공격수' 이승우 득점포 기대

2015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2연승을 거둔 최진철호가 3전승으로 16강 진출을 노린다.

최진철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U-17 축구대표팀은 오는 24일 오전 5시(한국시간) 칠레 코킴보 프란시스코 산체스 루모로소 스타디움에서 잉글랜드와 B조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른다.

앞서 열린 1·2차전에서 한국은 브라질과 기니를 각각 1-0으로 꺾고 승점 6을 확보했다. B조 단독 선두에 올라 16강 진출을 일찌감치 확정지었다.

브라질·기니·잉글랜드와 함께 편성된 '죽음의 조'에서 최약체로 평가됐던 한국 축구가 오히려 가장 먼저 16강에 진출한 이변을 연출한 것이다.

이번 경기에서도 이승우(17·FC 바르셀로나)의 활약이 기대된다. 이승우는 브라질, 기니와 조별리그 경기에서 공수 양면에 걸쳐 팀에 잘 녹아드는 플레이를 펼쳤다.

한국 U-17 축구 대표팀이 24일(이하 한국시간) 2015 국제축구연맹 U-17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잉글랜드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다. 사진은 지난 21일 열린 조별리그 2차전 기니와의 경기에서 기니 선수들과 볼 경쟁을 하고 있는 이승우. /대한축구협회·연합뉴스

지난 18일 브라질과 1차전에서는 후반 38분까지 그라운드를 누비며 왕성한 활동력을 과시했다. 21일 기니와의 경기에서는 후반 18분 위력적인 중거리슛을 시도하기도 했다.

다만 두 경기 동안 공격수로서 득점이 없는 점이 다소 아쉽다. 24일 잉글랜드와의 조별리그 최종전을 준비하는 이승우로서는 이 경기에서 시원한 골을 기대할 만하다.

이승우는 기니 전을 마치고 "후반전이 끝날 때까지 싸워준 동료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며 팀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는 스페인어로 "마지막 순간에 기니를 물리쳤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글을 올렸다.

한편 울리 슈틸리케 축구 대표팀 감독은 '리틀 태극전사'들의 선전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22일 "슈틸리케 감독이 기니와의 U-17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승리한 U-17 대표팀에 또 다시 축전을 보냈다"고 전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지난 18일 브라질과의 경기 이후 축전을 보냈다. 이번 축전을 통해서는 '잘 싸웠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완성했네요. 축하합니다'라는 내용을 담아 최진철호의 활약을 격려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육상 4관왕 김국영, 전국체전 'MVP' 영광

제9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육상 4관왕에 오른 김국영(광주광역시청)이 22일 기자단 투표를 통해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사진은 지난 19일 열린 육상 남자 일반부 200m 결승전에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김국영의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14회 연속 종합우승

제96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에서 육상 4관왕에 오른 김국영(24·광주광역시청)이 제96회 올해 전국체전 최고의 선수로 선정됐다.

김국영은 대회 마지막 날인 22일 기자단 투표에서 전체 28표 가운데 20표를 얻어 최우수선수(MVP)를 받았다. 2위는 5표를 받은 수영의 임다솔(계룡고)이 차지했다.

김국영은 이번 대회에서 남자 100m, 200m, 400m계주, 16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다만 자신이 보유한 한국기록을 경신하는 데는 실패했다. 수영에서 한국 신기록을 두 차례나 경신한 임다솔과의 경합이 예상됐으나 기자단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김국영의 손을 들어줬다.

김국영이 지난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에서 5년 만에 100m 한국 신기록을 세운 것도 이번 투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김국영은 19세였던 2010년 전국육상선수권에서 31년 만에 100m 한국기록을 갈아치우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한동안 주춤했던 그는 광주 유니버시아드에서의 기록 경신에 이어 전국체전 MVP까지 거머쥐며 최고의 한 해를 보내게 됐다.

한편 제96회 전국체전은 이날 1주일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했다. 경기도가 14회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내년 대회는 충청남도에서 열린다. /장병호 기자

스페인과 프랑스 프로축구 정규리그 1위인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 파리생제르맹(프랑스)가 22일(한국시각) 열린 2015-2016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A조 3차전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AP 연합뉴스

스페인 vs 프랑스 맞대결 무승부

UEFA 챔피언스리그 A조 3차전 레알마드리드·PSG, 승점 7 기록

스페인과 프랑스 프로축구 정규리그 1위의 대결로 기대를 모았던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 파리생제르맹(PSG·프랑스)의 맞대결이 무승부로 끝났다.

레알 마드리드와 PSG는 22일(한국시각)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열린 2015-2016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A조 3차전에서 0-0으로 비겼다.

레알 마드리드는 전반 26분 토니 크로스의 패스를 받은 헤세가 문전에서 낮게 깔아 찬 슈팅이 키퍼에 막혔다. 10분 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헤딩슛 역시 키퍼를 넘기지 못하며 전반전은 0-0으로 끝났다.

PSG도 후반 들어 에딘손 카바니의 슛 등으로 선제골을 노렸지만 득점에는 실패했다. 레알마드리드의 호날두는 후반 27분 페널티지역 측면에서 왼발 슛을 날렸지만 골로 이어지지 않았다.

앞선 경기에서 나란히 2연승을 기록했던 양팀은 이날 무승부로 승점 7점을 기록했다. 골득실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앞서 선두를 유지했다.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잉글랜드)는 세비야(스페인)와의 D조 예선 3차전에서 경기 종료 직전 터진 케빈 더 브라위너의 결승골에 힘입어 2-1 역전승을 거뒀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와 CSKA 모스크바(러시아)의 경기는 1-1, 유벤투스(이탈리아)와 보루시아 묀헨글라드바흐(독일)의 경기는 0-0 무승부로 끝났다. /장병호 기자

메츠, 29년 만에 월드시리즈 정상 도전

15년 만에 내셔널리그 우승 시카고컵스에 8-3 승리

미국 프로야구 뉴욕 메츠가 15년 만에 내셔널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메츠는 2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의 미국 프로야구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7전 4승제) 4차전에서 8-3 승리를 거뒀다.

9년 만에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우승을 차지하며 챔피언십시리즈에 진출한 메츠는 4전 전승을 기록하며 내셔널리그 우승까지 차지했다. 남아 있는 월드시리즈까지 우승하면 29년 만에 메이저리그 정상에 오르게 된다.

메츠는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에서 격돌 중인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 중 승자와 월드시리즈에서 맞붙는다. 캔자스시티가 토론토에 3승 2패로 앞서고 있다. 양팀은 오는 24일 ALCS 6차전을 치른다. /장병호 기자

22일(한국시간) 열린 미국 프로야구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에서 뉴욕 메츠가 시카고 컵스에 8-3 승리를 거둔 뒤 선수들이 함께 기뻐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생활 영어

I am going to call our guests

A: Are we ready for tomorrow's event?

B: I'm going to call our guests after lunch.

I'm going to set up the conference room.

A: We are all set, then.

Oh, I almost forgot. I'm going to get som

B: e refreshments.

A: Get something easy to eat.

B: And several kinds of beverages.

A: OK, that will do.

우리 손님들에게 전화할 예정입니다

A: 우리가 내일 행사에 준비가 되어 있나요?

B: 제가 점심 후에 우리 손님들에게 전화할 예정입니다.

A: 저는 회의실을 세팅할 예정입니다.

B: 그럼 우리는 모두 준비됐네요.

A: 아, 잊을 뻔했네요. 제가 다과를 사 올 예정이에요.

B: 먹기 쉬운 것으로 사세요.

A: 그리고 몇 종류의 음료도요.

B: 네, 그걸로 충분하겠네요.

문법Point

'~할 예정이다'라는 뜻의 be going to는 100% 확정되지 않았으나 하려고 마음먹은 일, 예정한 일을 말할 때 사용한다.
부정문에서는 be 동사와 going 사이에 not을 넣는다
의문문을 만들려면 be 동사를 문장 앞으로 보내면 된다.

ex) Are you going to leave tomorrow? 내일 떠날건가요?
No, I'm not. 아니오, 안 떠날거예요.

Words

set up 세팅하다, 준비하다　refreshments 다과
beverage 음료

* I almost forgot : 잊을 뻔했어요
– 부사 almost를 과거형 동사 앞에 붙이면 '~할 뻔했다'라는 의미가 된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6			7		9		
			2			5	3	
9		1	5		4			6
					5	8		
4	9						5	7
		5	7					
6			9		7	3		2
	7	9			2			
		8		3			1	

	1	7	8		9			
4								2
	8	9		4				
		4	2				6	1
8		3				9		5
9	2				3	7		
				8		6	5	
6								9
			1		6	2	4	

스도쿠 정답

5	6	2	3	7	1	9	4	8
8	4	7	2	6	9	5	3	1
9	3	1	5	8	4	2	7	6
7	2	6	1	4	5	8	9	3
4	9	3	6	2	8	1	5	7
1	8	5	7	9	3	6	2	4
6	1	4	9	5	7	3	8	2
3	7	9	8	1	2	4	6	5
2	5	8	4	3	6	7	1	9

2	1	7	8	5	9	4	3	6
4	5	6	3	7	1	8	9	2
3	8	9	6	4	2	5	1	7
5	7	4	2	9	8	3	6	1
8	6	3	7	1	4	9	2	5
9	2	1	5	6	3	7	8	4
1	4	2	9	8	7	6	5	3
6	3	8	4	2	5	1	7	9
7	9	5	1	3	6	2	4	8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인생 후반기에 새로운 진로가 고민입니다
농림업 경력 살려 귀농·귀촌 준비하세요

스마트 남자 54년 5월 9일 양력 22시 15분경

Q 안녕하세요? 많은 사람의 인생의 길잡이가 돼 주시는 선생님의 '사주 속으로'를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저의 고민을 말씀 드립니다.
54년생 남자로 농림업 관련 공공기업에서 뼈를 묻혀 살아오다가 명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온실 속에서 자라 오다가 갑자기 온실의 천장이 태풍에 벗겨져서 밖의 찬 공기에 노출 된 느낌 입니다.
사람의 수명은 길어지고 퇴직은 일찍 해서 아직도 수십 년이 남아 있는 데 지금부터 인생의 새로운 길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정해야 하는지 부탁을 드립니다. 저의 상담이 꼭 채택되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A 귀하의 경우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과 같은 형상으로 상당한 인내력이 있으나 재성(財星: 사업이나 재물을 나타냄)이 운에서 2016년부터 하향 길로 가고 있으므로 사업할 가능성이 있으나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이 듭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갈잎을 먹으면 안 된 다고 하였고 물고기는 놀던 물이 좋다'라고 하였습니다.
은퇴하여 제 2의 인생길을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의례히 생각하는 것이 사업이며 창업인데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율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너무 많고 창업자 중에 1년에 70%가 망하고 3년 이상을 버티는 사람이 극히 드문 실정 이라고 하니 쉽게 덤벼들 일이 아닙니다.
귀하가 농림업에 수십 년을 근무했던 경력을 살려 제2의 인생길을 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 될 것입니다. 귀농·귀촌도 검토하는 것도 검토해보고 그러나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고향에 돌아가거나 전원 속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 텃밭을 일구며 사는 상상을 해봤을 법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동안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동료들과의 불화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전원은 마음의 안식처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귀농귀촌은 갈수록 늘고 있는데 전원생활에 대한 갈망과 고부가가치 농업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1955~63년생)의 움직임이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귀농귀촌 실패 사례도 적지 않아 귀농귀촌가구의 60%~70%가 정착에 실패하여 도시로 되돌아가는 역귀현상이 심화되는 추세입니다.
귀농하고자 한다면 5년 정도 준비과정이 요구되는데 먼저 2년 동안은 기본계획을 세우고 3년은 이주에 필요한 작업들을 서서히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0월 23일 (음 9월 11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건강도 생각해야 할 시기입니다. **60년생** 말을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72년생** 자기의 자신을 아는 자가 현명한 자입니다. **84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49년생 앞에 너무나도 큰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61년생**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73년생** 기분 전환이 필요합니다. **85년생** 귀하가 가던 방향을 고집해야 합니다.

50년생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합니다. **62년생** 중심을 확실하게 잡고 집중하세요. **74년생**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날입니다. **86년생** 오늘 하루를 즐기세요.

51년생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사세요. **63년생** 부와 명예가 귀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75년생** 생활을 즐거워하세요. **87년생** 오늘은 파란색 계통의 옷을 입는것이 길합니다.

52년생 정신을 맑게하세요. **64년생** 현실적이면서 낭만적인 삶을 사세요. **76년생** 너무 무게 잡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88년생** 갑자기 모험심이 생깁니다.

53년생 마음이 흔들릴 일이 있습니다. **65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보세요. **77년생**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떠나세요. **89년생**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54년생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세요. **66년생**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78년생** 아직 시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90년생** 마음을 편히 가지고 여행을 다녀오세요.

55년생 즐거운 하루입니다. **67년생** 일처리에 있어서 서두르지 마세요. **79년생** 옛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91년생** 인간관계에 있어서 고집을 피우지마세요.

56년생 새로운 일에 착수하는 것은 불리합니다. **68년생** 운세가 좋지 않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80년생** 참고 인내하면 노력의 결실이 있겠습니다. **92년생** 애정운이 길합니다.

57년생 단시일 내에 이루려는 꿈은 불길합니다. **69년생** 노력하면 반드시 얻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81년생** 만인이 공로를 치하하며 받들게 됩니다. **93년생** 사업이 번창하게 됩니다.

58년생 집안에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70년생** 좀더 치성을 드림이 좋겠습니다. **82년생** 하늘이 대복을 내려주니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94년생** 오랜 끈기와 인내가 결실을 보게 됩니다.

59년생 건강은 건강할 때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71년생** 동쪽에서 귀한 손님이 옵니다. **83년생** 기회란 늘 오는 것이 아닙니다. **95년생** 호랑이가 날개를 달았으므로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비수 겨눈 중일 외교전

송병형의 딴생각

중국과 일본의 국가정상들이 전면에 나서 외교 전쟁을 벌이고 있다. 손에는 날 선 비수를 든 채 상대방의 등을 노리고 있다. 그 냉엄함을 지켜보자니 피부에 소름이 돋는다.

영국을 국빈 방문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의회 연설에서 2차대전 중 일본의 만행을 언급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일가가 마련한 만찬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시 주석이 70조 원을 뿌리니 아무리 미국의 맹방이라도 영국은 시 주석의 환심을 사기에 바빴다. 자신들의 아픈 기억을 건드리는 이야기지만 경청해야 했다.

영국은 자신이 키워 아시아 최초의 열강으로 만들어 준 일본에 참혹한 배신을 당한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2차대전 동남아 전선에서 영국은 해군의 자존심인 전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를 고작 일본 뇌격기 공격에 잃었다. 그리고 겨우 두달 정도 지난 1942년 2월 싱가포르 주둔군은 제대로 된 전투조차 없이 일본의 자전거 부대에 항복했다. 영국군의 아서 퍼시발 장군은 항복 회담장에서 자신의 어이 없는 항복 결정을 후회하며 망설이다 일본제국군 야마시타 토모유키 장군에게 "예스냐, 노냐"라는 고함까지 들어야 했다. 이 일화는 역사에 기록돼 영국의 오점으로 남았다.

이때 포로가 된 10만 가까운 영국군은 동남아의 밀림에서 '죽음의 철도'를 건설하다 죽어 나갔다. 1만 3000명 가량이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병들어 죽었다. 역사상 존재했던 어떤 포로수용소에서도 벌어진 바 없는 대규모 참사였다. 얼마나 악명이 높았던지 전후 명장 데이비드 린 감독이 영화화 하기도 했다. 잘 알려진 '콰이강의 다리'다.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영국인들의 아픈 기억을 건드리니 일본이 당황하지 않을 리 없다.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언론인 산케이신문은 "시 주석이 이상한 연설을 했다. 만찬에서도 일본의 잔학성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라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22일 중앙아시아 순방을 떠났다. 기자들에게는 대놓고 '중국을 노리고 나서는' 순방길이라고 말했다. 중앙아시아는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일대일로(일대:실크로드경제벨트, 일로:해상실크로드길) 프로젝트의 한 축이다. 일본이 개입하면 중국은 골치 아파진다.

중앙아시아의 자원도 있다. 일본은 2010년 9월 센카쿠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중국과의 일전을 외치다 중국의 희토류(첨단제품의 필수원료) 수출 중단 협박에 물러서는 굴욕을 당해야 했다. 이후 일본은 절치부심 수입처 다각화를 추진했다. 이번 순방 길에서는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는 속내다.

일본은 미국의 편에 서서 중국의 해양 진출을 봉쇄 중이다. 중국이 건설 중인 남중국해 인공섬을 두고 미중 간 일촉즉발의 상황인 지금, 자신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다. 이 정도 수준이면 단순한 수사가 아닌 말 그대로 '외교 전쟁'이다.

그 치열함에 놀라다보면 떠오르는 게 우리 외교에 대한 아쉬움이다. 지난 미국 방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입도 뻥긋 못했다. 되레 '한국은 왜 미래를 보지 않느냐'는 투의 핀잔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그것도 공개석상에서 들어야 했다. 한국의 '중국 쏠림' 비판을 씻어내기 위한 행보라지만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대략 난감이다. 남중국해 문제에서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은 일이나 북중 관계 변화 등 방미 직전 달라진 정세에 대한 고려는 고사하고 업데이트조차 하지 않은 '대북 공동성명'은 말할 나위도 없다.

/글로벌뉴스부장

社說

이산가족 더 자주 더 많이 만나야

꿈만 같았던 2박3일이 지나갔다. 20회째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의 1차상봉행사가 22일 끝난 것이다. 북한의 가족을 만나러 금강산까지 갔던 남측 상봉단 389명은 이날 오전 2시간 동안 북측 상봉단과 마지막으로 만나고 돌아왔다. 이들 이산가족의 만남과 헤어짐은 언제나 온 국민의 가슴을 미어지게 한다.

만나고 헤어짐의 아쉬움과 아픔이 크기는 하지만 아예 만나지도 못하고 소식도 모르고 지내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다. 그런 까닭에 아직까지 상봉하지 못한 이산가족이 하루 빨리 만나게 되기를 이산가족 자신들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소망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가뭄에 콩 나오듯이 열렸다. 이번 행사도 1년8개월만에 간신히 마련됐다. 그 사이 이산가족의 비원과 아픔이 얼마나 컸을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과제는 이산가족 행사를 꾸준히 정기적으로 갖는 것이다. 이번에 어렵사리 마련된 행사를 계기로 더 자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산가족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은 6만3921명에 이른다. 상봉행사가 이번 같은 규모로 분기마다 열린다면 이들 가족이 모두 상봉하는데 40년 넘게 걸린다. 월 1회 마련된다 해도 10년 이상 소요된다. 그런데 이들 이산가족은 대부분 고령자들이다. 1분1초가 급하다. 따라서 이산가족이 살아 있는 동안 단 1차례라도 헤어진 가족을 만나보려면 상봉횟수와 상봉규모가 대폭 늘어나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아 왔듯이,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확대는 남북한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한 이뤄지기 어렵다. 남북한이 좀더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최우선의 과제로 추진하면 된다. 남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남북관계의 개선도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다. 다행히 남북한은 최근 한목소리로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매우 상서로운 일이다. 남북한 당국이 앞으로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이통사 '속도 전쟁' 3G 가입자 뒷전 우려

기자 수첩

양 성 운
<산업부 기자>

세계 경제 규모 11위인 대한민국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 이런 문화 덕분에 우리는 단기간 내에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2009년 아이폰3GS가 국내 출시되면서 이동통신 3사들은 3G 데이터의 망구축과 영상통화, 글로벌 로밍 등을 장점을 내세우며 스마트폰을 판매했다. 이통사들은 읍면단위까지 전국망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 품질의 우수성을 알렸다.

3G를 등에 업은 스마트폰 시대가 이제 정착하나 하는 순간 LTE라는 4G 시대가 열렸으며, LTE가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기도 전에 LTE-A가 선보이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광대역 LTE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빨리빨리' 문화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3G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이동 중 기지국이 잡히지 않아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자주 접한다고 한다. 실제 기자가 3G 스마트폰을 이용해 출퇴근길(영등포~광화문)에서 테스트한 결과 차량 이용시 마포대교와 충정로역 부근에서 통신이 끊기는 현상을 발견했다. 지하철 이동시에도 서울역~남영역과 용산-노량진 구간에서 끊김 현상이 발생해 음성 통화는 물론 데이터도 전송할 수 없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이 4G 망을 구축하면서 자연스럽게 3G 망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3G 스마트폰 사용자가 있지만 서비스 이용이 불편하면 자연스럽게 4G로 이동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동통신사의 기술 경쟁에 맞춰 기존 사용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서비스를 이동해야한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 말 기준 KT의 3G 가입자는 607만명이며 SK텔레콤의 3G나 2G 가입자가 1093만2000명에 달한다. 최신 서비스도 좋지만 기존 사용자들의 신뢰와 믿음을 저버린다면 새로운 서비스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을 이사철, 분쟁없는 인테리어 팁

소비자 119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이사할 집을 미리 인테리어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인테리어를 바꿀 때 편리함을 이유로 업체에 공사를 일임하는 경우 분쟁이나 불만이 발생하기 쉽다.

분쟁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을까.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셀프인테리어를 한다면 분쟁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지만 직장을 다니는 경우 셀프인테리어는 엄두도 내기 어렵다. 업체를 선정할 때는 우선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자재를 변경해야할 때 상황에 따른 책임범위를 미리 적시하고 사후관리(AS) 기간과 범위도 꼼꼼히 게재하는 것이 좋다.

원하는 공사범위와 마감자재의 수준을 상담을 통해 직접 결정할 필요도 있다. "막연히 좋은 걸로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한다면 자재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바닥재는 3.3㎡당 10만원대, 주방가구는 300만원 이내 등으로 개별 품목에 대한 상한선을 미리 정해 놓는 것이 좋다.

시공 후 전체적으로 공간이 조화롭지 못해 재시공을 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최근 인테리어 전문기업들이 내놓은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

인테리어 콘셉트를 미리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리 콘셉트를 정하지 않을 경우 인테리어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어 반복적인 수정을 하게 되면 비용뿐만 아니라 공사기간까지 늦어질 수 있다. 눈에 보이는 디자인과 전체적인 외관과 함께 실용성도 꼼꼼히 따져봐야한다. 인테리어 전 조명기구의 위치, 욕실과 주방의 배수성, 사용하는 자재들의 유해물질 포함 여부 등 디테일한 부분까지 확인해 보는 것은 필수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인사

◇서울신문 △국장급 승진 ▷제작국장 김창원 △전보 ▷시설안전관리국장 백필현 ▷편집국 수석부국장 김균미 ▷콘텐츠평가팀장 황성기 ◇국제신문 ▷편집국 부국장 정순백 ▷편집국 부국장 구시영 ▷광고국 부국장 정상도 ▷편집국 경남취재본부장 배재한 ▷서부경남취재본부장 김인수 ▷스포츠부 부장(부국장) 안인석 ▷편집1부장 조영훈 ▷편집2부장 김규학 ▷정치부장 강춘진 ▷경제부장 이은정 ▷사회1부장 오상준 ▷사회2부장 오광수 ▷문화부장 신수건 ▷생활레저부장 이경식 ▷해양수산부장 이승렬 ▷전문기자 조봉권 ▷뉴미디어본부 디지털뉴스부장 이노성 ▷기획탐사팀장 김희국

부고

▲이석희씨 별세, 이호영(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오영(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두영(트리니다드토바고 대사)·동영(법률사무소 동현 변호사)씨 부친상 = 22일 오전 2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 발인 24일 오전 5시, 장지 의령선영(02-3010-2232)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 집 국 장	이 장 규
인 쇄 인	송 필 호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대한민국 구석구석 문화융성 관광에서 시작됩니다

K Smile 한국이 웃으면 세계가 웃어요

떠나세요

가을은 짧지만

가을의 추억은 깁니다

[충청북도 송호리 국민관광지]

미소와 함께 가을 여행을 떠나보세요

다양한 할인 혜택과 가을 여행의 즐거움이 가득한 관광주간!
지금 바로 [관광주간]을 검색해보세요 (http://fall.visitkorea.or.kr)

주최 /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참가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기상청, 새만금개발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 근로복지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참여기업** 아시아나항공, 롯데렌터카, 한화호텔&리조트, 대명리조트, 이랜드파크, 호텔현대, 롯데호텔, 드마리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카드, 롯데월드, 에버랜드리조트, 한국민속촌, 365세이프타운, 비젼코베아, 솔베이아웃도어, 세일투나잇, 호텔엔조이, 호텔조인